

96학년도 국어국문학과 학술답사 보고서

- 구비문학반 학술답사보고서
- 국어학반 학술답사보고서
- 현대작가반 학술답사보고서

구비문화반 학술 답사 보고서

1. 답사 지역 및 조 편성

구비문화반은 서대석 선생님, 박희병 선생님의 지도 인솔 하에 1996년 4월 24일(수)에서 1996년 4월 47일(토)까지 3박 4일 동안 충청북도 충주시(구 충주시·증원군) 일대에서 구비문화 및 문헌 자료를 조사·채록하고, 문화 유적을 답사하였다. 조 편성 및 조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조 : 서대석 선생님, 정재민(박사과정), 김형금(석사과정), 임지오, 김선아(학부과정)

2조 : 박희병 선생님, 최원오(박사과정), 이경하, 장유정(석사과정), 최규백, 강병조(학부과정)

3조 : 손태도(박사과정), 장시광(박사과정), 김경화(석사과정), 김성준, 체숙희(학부과정)

4조 : 황재문(조교), 류준경, 서정민(석사과정), 홍석준(학부과정)

5조 : 임주탁(조교), 류준필(박사수료), 심우장(석사과정), 김은아, 권근영(학부과정)

2. 조별 활동 및 자체 평가회

1조는 충주시와 살미면 일대에서 무가, 설화, 민요를 조사하였다. 4월 24일 오후에는 충주시내에서 무경 채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4월 25일 하루는 살미면 문산리 경로당에서 배유현, 최수복, 지동수씨 등으로부터 설화, 민요, 민속을 조사하였다. 오전에는 배유현씨로부터 도깨비에 대한 관념과 관련된 설화를 비롯하여, 「신립장군 전설」을 조사하였다. 최수복씨로부터는 「화다지 소리」, 「정선아리랑」, 「소상팔경」 등을 채록하였다. 오후 지동수씨로부터 「놀부심술대목」, 「공명가」, 「사랑가」, 「창부터령」, 「각설이타령」, 「화심곡」, 「고사반」, 「논매는소리」 등의 민요와 잡가를 채록하였으며, 「대감딸의 병을 고쳐 준 오관천장」, 「산삼을 뱃으려다 망한 부자」 등 설화 2편을 채록하였다. 또한 윤창열로부터 「산삼을 뱃으려다 망한 부자」를 채록하였다. 경로당의 살림살이를 맡은 임옥순 할머니로부터 「장타령」을 채록한 후, 살미면 조사를 마쳤다. 4월 26일 오전에는 자체 평가회를 가졌으며, 탄금대, 수주팔봉 등의 유적지를 답사한 후 오후 전체 짐결지로 이동하였다.

2조는 이류면, 주덕면, 금가면 일대를 답사하였다. 4월 24일 오후, 주덕면을 답사하여 김진영씨로부터 민요 「고사반」, 「화심곡」 등을 조사 채록하였고, 25일에는 이류면을 답사하여 백철기, 김남출씨 등으로부터 생애

담과 단편 설화를 조사 채록하였으며, 26일에는 금가면을 답사하여 정춘택씨댁을 방문하여 한문서적 및 국문지리지, 고전소설「신제후전」 등을 열람한 후 월악산 집결지에 모였다.

3조는 가금면, 노은면, 신니면 일대를 답사하였다. 4월 24일 오후, 가금면에서 채규상씨로부터 설화 「채씨와 거북이 이야기」를 조사 채록하고 25일에는 노은면에서 안경회씨 등으로부터 이 지역의 두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사 채록하고 신니면에서는 지남기, 최종남, 변준수씨 등으로부터 민요 「고사반」, 「모찌기노래」, 「모내기노래」, 「김매기노래」 등을 조사 채록하였으며, 26일에는 조별 평가 모임을 가진 뒤 충주시 일대의 유적지를 답사하고 전체 집결지에 집결하였다.

4조는 양성면, 소태면, 엄정면 일대의 구비문화 및 문헌 자료를 조사 채록하였다. 24일 오후에는 엄정면 노인정에서 박기호씨로부터 「불효자 이야기」, 「고대소설 구이산」 등을 채록하고 1900년대 초의 고전소설의 유통상황에 대한 체험담을 박기호, 김성묵씨 등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4월 25일에는 중원 윤민걸 가옥을 탐방하여 중원 일대의 가옥 구조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오후에는 의암 유인석 선생의 종손인 유연수씨 댁을 방문하였다. 유연수씨는 유인석의 숙부

유중교의 후손으로 그 할아버지가 유인석에게로 입양되어 후손으로 남아 있다 했다. 총 56행의 가사 「녀손훈사」를 확인했고, 그 밖의 고문현 300권 정도를 열람할 수 있었다. 이 날 오후에 조사 장소를 원주 아래에 있는 소태면으로 옮겨서 별묘리의 이복구씨로부터 「시집살이노래」, 「배틀노래」를 채록하고, 혀정동씨로부터는 「청룡사 전설」, 「널마을 전설」, 「도깨비가 태워준 허적」 등의 설화를 채록하였다. 26일 오전에는 소태면에 있는 청용사를 탐방하고, 오후에는 월악산 집결지에 합류하였다.

5조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서초구청에 집결하여 인원을 확인하고 준비물을 점검한 뒤 산체면을 향해서 출발하였다. 12시 40분에 산체면 사무소에 들러서 예비 조사 협조를 얻은 후 송강 노인정을 시발로 본격적인 답사에 들어 갔다. 노인정의 분위기는 아주 좋았으나 자연스런 구연을 얻어내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노들강변」, 「모십기 노래」, 「논매기노래」, 「빌매기노래」 등을 녹음하는 수준에서 1차 조사를 마쳤다. 이후 서봉마을의 이필한씨 댁을 방문했지만 구연 상황을 채록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했다. 25일, 우선 동량면 시무소에 들러서 예비 조사를 마친 후에 조돈 노인정과 관암 노인정, 탑평 노인정을 방문했다. 농번기인 관계로 할아버지들이 일터에 나가고 노인정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직접 일터로 찾아가 채록하려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오후가 되어 조원들이 각자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채록하기로 하고 홀어졌다. 일부는 첫째 날에 조사가 미흡한 산척면 송강 노인정에 다시 찾아가 보았고, 나머지는 조돈, 관암, 탑평 마을을 중심으로 조사 활동을 펼쳤다. 관암 마을의 전상보(全相輔, 남, 70) 할아버지로부터 「돈많은 뱃사공」, 「선심악심」, 「처녀귀신」, 「선생님귀신」 등 4편의 설화를 채록하였다. 그리고 조돈 마을의 진교월(여, 70) 할머니로부터 많은 양의 설화와 민요를 채록할 수 있었다. 설화 「거짓말하기」, 「호랑이 꼬리」, 「아버지 원수 갚기」, 「방아타령 이야기」, 「두꺼비 보은」, 「꾀많은 토끼」, 「종소리」, 「영묘한 구슬」, 「구렁덩덩신선비」, 「못생긴 신부」 등과 민요 「영감타령」, 「진주난봉가」, 「정선아리랑」, 「자장가」, 「진김이 타령」 등을 채록했다. 더불어 구연 장소에 있었던 김양순(여, 68) 할머니로부터 몇 편의 설화를 채록할 수 있었다. 26일 오전에 전상보씨댁을 방문하여 고서를 열람하고 「사도전 韋道傳」(목판본) 등의 문헌을 복사하였고, 근처에 있는 법경대사 자등탑비를 탁본했다. 점심 식사와 함께 조별 답사를 정리하고 오후에는 중원 고구려비 등 역사 유적지를 찾아 견학한 후 전체 답사반 집결지인 월악산 유원지로 향했다.

이렇게 조별 활동을 마치고 4월 27일 저녁에는 모두 월악산 집결지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한 후 김병국 선생님, 서대석 선생님, 박희병 선생님을 모시고 밤늦게까지 답사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회를 가졌다. 28일 아침 식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9시 경에 충주를 떠나 서울로 돌아왔다.

3. 전체 평가회 및 해단식

5월 2일(목) 오후 4시 전체 평가회를 가지고 해단하였다. 이번 구비문학반 답사를 통하여 우리는 구비문학자료뿐 아니라 문헌, 소설 자료의 조사 방법과 요령을 체득할 수 있었으며, 적지 않은 문헌과 설화, 민요 등을 열람·조사·채록할 수 있었다. 특히 50여 편의 민요·설화 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의 결손 부분인 충주시 양성면, 엄정면, 동량면, 산척면, 살미면, 이류면, 가금면 일대의 구비문학 자료를 보완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자료의 조사 채록 못지 않게 이번 답사를 통하여 우리 구비문학반은 선생님과 대학원생, 학부생 사이에 더욱 더 긴밀하고 돈독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우리 사람까지 황폐화된 농촌의 실상과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다. 아무쪼록 바쁜 일정과 적은 활동 비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답사 활동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 대학원생, 학부생들과, 낯선 방

문객을 홀대하지 않고 호의적으로 조사에 협조해 주신 해당 지역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4. 조사 채록 자료

(지면 관계상 조사 채록한 자료 가운데 일부를 발췌하여싣는다.)

가. 충주시내, 살미면, 상모면 일대

(4월 25일 오후에 살미면 면사무소에 들렸더니 최수복씨와 지동수씨를 추천해 주었다. 시간이 늦어서 26일 오후에 살미면 문산리 경로당에서 지동수씨를 만나 조사 경위를 말씀드렸더니, 즉각 노래를 시작하였다. 채보자는 살미면 문산리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농사를 짓고 있다. 그는 어려서 집에 노래선생을 불러다 배웠다고 하며, 농악대의 상모집으로 활동하면서 17회나 청주농악대회에 참가한 바 있다고 했다. 지금도 청주와 괴산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대 충주캠퍼스 학생들을 일주일에 3, 4 시간 정도씩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경력에 걸맞게 채보자는 구연에 거침이 없었으며, 목청도 매우 낭랑하여 채록이 매우 용이하였다. 또한 잡가와 민요, 시조창, 판소리 등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놀부 심술 대목」

[구연재 지동수(남, 72세)]

[구연장소] 살미면 문산리 경로당

[구연일시] 1996. 4. 26. 오후

[조사자] 서대석, 정재민, 김형금, 김선아, 임지오

(말로) 그전에 흥부 놀부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흥부라는 사람은 마음씨가 좋아서 차차 차차 부자가 돼서 잘 살았는데, 놀부란 놈은 일년 열두달 삼백 육십 오일 먹으면 날마다 꽂 못된 것만 허구 대된다 말야. 이제 놀보 못된 것 허구 맹기는 내력을 헐테니 잘 들어 보쇼

(노래로) 놀보 심술 들어보소 흥 그렇지 애밴 댁네 배통차기, 굽사댕이 뒤집어놓기, 안질뱅이 뻗쳐놓기, 불난데 부채질, 초상난데 춤추기, 아닌 밤중 고함지르기, 뒷등어리 말뚝 박기, 비단전에 물파붓기, 똥누는 놈 주저 앉히기, 물에 빠진 놈 덜미잡기, 노는 자식 집어 뜯기, 올면은 똥 빨리고,

(말로) 아 요놈이, 놀보란 놈이 요렇게 나빠. 아주 못된 것만 허구 다녀.(웃음) 차 이 때는 어느 때나, 동지선달 설한풍에 백설이 펼-펼-날리는 이때, 놀보란 놈이 동네군 삼십명을 데리고 낫 도끼 걸며지고, 강원도 금강산 중턱엔 썩 올라서니 마주 섰다 양나무, 한다리 걸쳐 전나무, 방구 쐬다 뽕나무, 입맞춰서 쪽나무.

(다시 노래) 나무 한 점을 해 걸며지고 한 대문을 열구서 들어서니, 진놈에 상은 흥글병글 상이요, 진녀의 상은 쟁그러질 상이요, 어느 놈에 비우를 맞추자 하니, 내애 신세가 고달프다 디리리 디리리리리 떠리리리리

「공명가」¹⁾

공명이—갈근아복으로/단장산 올라가서/
 동남풍을 빌때 머리를 고/수족벗고 학기장에
 학기끼고/동남풍을 빌—적에/동에는 현무기
 요/북에는 청룡기요/서에는 백호기요/동서사
 방으로 좌우로 벌리여 기를 끊고/중앙에 황
 기를 꼽아 놓고/만세 삼창 드린 후에/단하루
 나려와서/바람은 기둥치듯 하고/만경산 벌기
 는 무사히 벌었으나/북창을 열고 단하루 나
 려왔으나/녀성벽력은 우루루루/번개불은 번
 쩍/비는 뚝—뚝 떨어질 제/갑자년 갑자월 갑
 자일 갑자시에/도행에 불어온다—서상정병
 서상정병 분부 듣고/필마단기로 장창을 높이
 들고/강상에 등등등 떠오는 배는/조자룡이
 타셨거든 잠간 머무르소사—//

「사랑가」

어하등등 내사랑아 이리보아도 내사랑 저
 리보아도 내사랑—/아랫목에서 웃목으로
 데루루루 굴리고 보아도 내사랑/웃목에서 아
 랫목으로 발길로 살짝 밀어 부쳐두 내사랑/
 어하 등등등 내사랑아—/한주먹 짹 쥐박구
 돌아서 보아두 내사랑/사랑사랑사랑 내사랑
 아—/네 그럼 내말을 들어를 봐라 무슨 내
 말을 들으라느니/병을 주느라구 벼들어질까
 나는 그것두 싫어/그러면 무엇을 먹으자구

1) 구연자, 구연 장소, 구연 일시, 조사자를 따로 밝
 하지 않은 것은 바로 앞의 것과 같다는 뜻이다.

벼들어질까/시금털털 개살구를 먹으자구 벼
 들어질까/어하등등 내사랑아—/

(말로) 이기 인제, 이게 인제 춘향이가 애
 기 갖는다구, 얘기갖는 시늉, 다 맥기 싫구,
 시금털털 개살구만 먹느느만

(다시 노래) 네 그럼 내말을 들어를 봐라
 일강노 보선을 밟아 신고/아장아장 아장아장
 아장 걸어올 적에/어하등등 내사랑아—

「정선 아리랑」

정선읍내 물레방아 잡목나무 공굴목은 허
 풍산이 동창남창 길주명산 도령정성 고자질
 만 푸어대는—/사구십십육 서른여섯칸에 물
 을 안구서 주야장천 빙글뱅글 도는데—아—
 —/기모장네야 말메느리를 안구서 어느시절에
 도나야—아—//지리산속으로 나무허리 가
 서 솔방울에 맞어죽은 영감아 이 빈빈찮은
 영감아 지리산 갈가마구야—아—아—아—
 —해—아—/애고후후 영감아—아—아—
 으—아—//나는 열에 한살 먹구 당신은 열
 에 두살 먹구 가막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살
 자구—/칠성물을 떠놓고 귀당, 궂당머리 마
 저풀구 백년사랑 훠아—애—아—/돌아갈
 려더니 어린 자식을 누한테 맷기구 죽는다
 말인가—/지리산 갈가마구야—//

「방아티령」

돌려라 돌려라 까마구 한놈을 돌려라/삼
 수갑산 멸병거지 무지개 뺑이나 돌려라/어야

디야—에헤야 꿩닭꿍닭//까마구 한놈은 몸뚱
어리가 하두 검으니 솔장시루만 들려라/어야
디야—에헤야 어야디야 꿩닭꿍닭//뛰난고리
는 개고리 달린고리는 문고리/얹친고리는 도
방고리 나는고리는 페꼬리/어야디야 어호야
꿍닭꿍닭//이산저산 다잔다구 아가리 딱 벌
리고 있는건 꼬꾸락/먼산보구 절하는 방아요
하늘보구 욕하는 절구매/이산저산 천지가는
건 가랑잎이요/이산저산 그물친거는 칡덩잎
이요/어야디야—어야디야 어야디야 어루루
루 꿩닭꿍닭//너는두 늙은이 나난두 늙은이
두늙은이가 육칠월에/쌀포자루만 질구서 논
두렁에서 넝닝그려쳤구나/어야디야 어야디
야 어호야 꿩닭꿍닭//너난두 젊은놈 나난두
젊은놈 두젊은놈들이/지게목발을 두드리면
서 넝닝그려쳤구나/어야디야 에헤야 어야디
야 꿩닭꿍닭//할아버지 상투는 옆으로 빽 돌
아가구/할머니 비녀쪽은 옆으로 빽 돌아가구
/어야디야—어허야 디야디야 꿩닭꿍닭//종
로 네거리 하마 저물어 엿장사 할아버지 갈
길이 없구나/어야디야 어허야—디야디야 어
허로더러 어야디야//

「창부터령」

백설같은 이얼굴에/반달같은 검은눈썹/앵
두곁은 붉은입술에/구름같은 내검은머리/에
비씨디 찌꺼를 살짝벌리/유뚱치마 양단 저고
리에/자주고름을 멋지게 달고/한짝 고름은

어깨를 넣겨/또한짝 고름은 입에 물고/어느
눔에 간장을 다녹일리구/요렇게 멋있게 생겼
느냐/리리리 리리리리리리 릴리리리 릴리리
리/니가 날만큼 생각을 하면/까시밭길 천리
라도 발벗구서/너를 찾어서 기련마는/리리리
리리리리리리 릴리리리리//

「논매는 소리」

에헤이루 방아호——/에헤이루 방아호——
-//이방아가 뉘방아나/강태공의 조석방아/
에헤이루 방아호——//청천하날에 별도 많다
/에헤이루 방아호——//시냇강변엔 자갈도
많다/에헤이루 방아호——//일락서산 해떨어
진다/에헤이루 방아호——//이 논배미를 얼
릉 매고/에헤이루 방아호——//웃논배미애 올
려가서/에헤이루 방아호——//얼렁 매고 한
잔 먹고/에헤이루 방아호——//

「장타령」

(말로)해—— 이 오랄땐 읊어도 갈데는
많습니다. 쉽게 한 주먹 떼 부쳐 주시아——
해——아——/

(노래) 일자나 한자나 들구나 보니 별빛이
송송 나송송 밤중 새들이 원연하다/이자 한
자나 들구나 보니 이해금에 저소리 잘른 기
생이 춤을 춘다/삼자나 한자나 들구나 보니
삼십먹은 노총각 장기들기가 늦어간다/사자
나 한자나 들구나 보니 사시장철 바쁜질 정

선장이 늦어간다/오자 한자를 들구나 보니
오관천장 관운장 적투미를 비게타구 계발선
생을 찾어간다/육자나 한자나 들구나 보니
육환대사 성인이 팔선 데리구 회통한다/칠자
나 한자나 들구나 보니 칠년대한 왕가물 비
한방울이 뚝 떨어지니 마님 가니가 춤을 춘
다/팔자나 한자나 들구나 보니 아들형제 팔
형제 한소당에다 글을 갈켜 경기 서울 첫서
울 과거 보기가 늦어간다/구자나 한자나 들
구나 보니 구우산중 구우중이 시래삿갓을 덮
어쓰고 구불구불 나리온다/장자나 한자나 들
구나 보니 장원광대 박광대 광대중에다 으련
일세//

「고시반」

이씨한양 정국시에/이별래 대별래/이동조
대동조/학의 등에다가 터를 닦고/봉의 머리
에다가 대궐을 짓고/대궐안에는 육조로다/육
조여섯분이 모여앉아/각읍각도를 마련할제/
사시는 도리가 되고/육육은 기둥이 되고/ 팔
풀은 대들보가 되고/여기저기 주초박고/여기
저기서 동세우고/이노지기루다가 서까래걸
어/흙토자 흙으로다가 물미잡고/양은기와로
집을 이고/쳐다보니 소라장판/내려다보니 각
진장판/방에 원앙금단/비단이불을 해쳐놓고/
영감하구 나하구 꿈을 꿀제/한숨자고 일어나
서/꿈에기를 하실적에/이 터에는 대대장군이
날것이니/뒤에주춤 투구봉은/대대장군이 날

것이요/앞에주춤 일산봉은 외손번성 할것이
니/ 옆에주춤 낮은봉은/노적봉이 분명하구나
/이터에다가 소를 먹이면은/우가뿔이 좌각뿔
이가 되고/말을 먹이면은 용마가 되고/개를
먹이면은 외눈백이 삽살개/마당 한복판에서
컹컹컹 짓는 소리/닭을 맥이면은 황지수탉이
되고/한짝날개 톡탁치면/억만석이 쏟아지고/
또 한짝날개 톡탁치면/억만냥이 쏟아지고/앞
강두 열두강/뒷강두 열두강/이십사강을 건너
갈제/배가 울어 못가겠네/나무배를 타자하니
/나무배는 썩어지고/흙토자 흙토선을 타자하
니/모진광풍에 어리설설 다풀어지고/돌배를
타자하니/돌배는 일굽(테이프 바꿈)/넘겨다
보니/육조 여섯분이 모여앉아/각읍각도를 마
련할적에(이하 중단)

「회다지 소리」

[구 연 재 최수복(남, 77세)]

[구연장소] 살미면 문산리 경로당

[구연일시] 1996. 4. 26 오전

[조사자] 서대식, 정재민, 김형급, 김선아, 임지오
(상여소리를 불러달라고 청했더니 한두구절 부
르다가 중단하였다. 실제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 후
렴을 불러 줄 사람이 마땅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장례풍속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답을 한 후에 달구
절 할 때 소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불러준 것이
다. 후렴은 조사자가 불렀다.)

천지현황 생긴후에/에헤이 덜고—//이월
령제 되어있고/에헤이 덜고—//만물이 번성

후에/애해이 덜고—//인생이 개강지라/애해이 덜고—//애해이 덜고—//애해이 덜고—//인생이 탄생하여/애해이 덜고—//시월이 여루하야/애해이 덜고—//인간칠십 돌아온니/애해이 덜고—//갈길이 따로있네/애해이 덜고—//인생이 사졸하면/애해이 덜고—//신에 지지를 구할적에/애해이 덜고—//팔도 명산을 답산혈체/애해이 덜고—//자관풍수가 누구누구/애해이 덜고—//성가사 지가사다 모였어라/애해이 덜고—//우두에 비개소서/애해이 덜고—//두루 천하를 둘러보니/애해이 덜고—//낙양은 천하지중/애해이 덜고—//대한민국이 제일이라/애해이 덜고—//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애해이 덜고—//수지조종은 황하수라/애해이 덜고—//백두산 낭마이 주춤주춤/애해이 덜고—//온데 간데를 몰랐더니/애해이 덜고—//한줄기는 경상도로 (잠시 중단됨) //한줄기는 강원도로/애해이 덜고—//한줄기는 경기도로/애해이 덜고—//경기도 삼각산은/애해이 덜고—//십삼도의 조산이라/애해이 덜고—//앞냇물은 시수가 되고/애해이 덜고—//(다시 중단되었다가 계속함) //삼각산 낭마이 주춤주춤/애해이 덜고—//온데 간데를 몰랐더니/애해이 덜고—//이씨 한양의 도읍지라/애해이 덜고—//앞내물은 사수가 되고/애해이 덜고—//사수가 형제로다/애해이 덜고—//애해이 덜고—//애해이 덜고—//삼각산 낭

마이 주춤주춤/애해이 덜고—//온데 간데를 몰랐더니/애해이 덜고—//강원도로 지초달아/애해이 덜고—//금강산이 제일인데/애해이 덜고—//금강산 낭마이 주춤주춤/애해이 덜고—//온데 간데를 몰랐더니/애해이 덜고—//오대산이 주봉이라/애해이 덜고—//오대산 낭마이 주춤주춤/애해이 덜고—//온데 간데를 몰랐더니/애해이 덜고—//경상도로 내리달아/애해이 덜고—//소백산이 주봉일세/애해이 덜고—//소백산 낭마이 주춤주춤/애해이 덜고—//온데 간데를 몰랐더니/애해이 덜고—//소조령이 주봉일세/애해이 덜고—//노령산 낭마이 주춤주춤 //온데 간데를 몰랐더니/애해이 덜고—//적보산이 주봉일세/애해이 덜고—//적보산이 주춤주춤/애해이 덜고—//온데 간데를 몰랐더니/애해이 덜고—//물라산이 주봉이라/애해이 덜고—//물라산 주봉을 둘러보니/애해이 덜고—//주봉이 불끈 솟아/애해이 덜고—//앞내물은 시수가 되고/애해이 덜고—//시수가 형제로세/애해이 덜고—//좌우청룡 우백호에/애해이 덜고—//청룡금갑에 기린성은/애해이 덜고—//장군대장 호가 되고/애해이 덜고—//백호금갑에 기린성은/애해이 덜고—//왕후 장생지지로다/애해이 덜고—//임자계축 만인강덕/애해이 덜고—//울진손사 병오정미/애해이 덜고—//곤신종어 인신손건에/애해이 덜고—//이십사자 좌활내에/애해이 덜고

—//어느 좌상만 잡아가면/에해이 덜고—//
천하대지지로다/에해이 덜고—//

「정선아리랑」

아리렁 이라렁 아라리러구려 어리렁 고개
열너매 나를 넘겨 주소//정선읍내 물레방아
는 사시장철 물만 인구서 주야장천으로 도
는테//우리집에 저 못난이는 날 안구 돌줄 모
르네/아리렁 이라렁 아라리러구려 어리렁 고
개 열너매 나를 넘겨 주소//옥강네이 사결치
씨일걸은 저고부는 통옥수수때 오구락박작
끓는데//우리집 저 양반은 어디를 가실라구
흰덜미를 하오/아리렁 이라렁 아라리러구려
어리렁 고개 열너매 나를 넘겨 주소//오륙적
단에 능라 삼팔로 날 감어 주지 말고/대장부
의 긴긴 팔로 날 감어 주오/아리렁 이라렁
아라리러구려 어리렁 고개 열너매 나를 넘
겨 주소//

「장타령」

[구 연 재 임우순(여 72세)]

[구연장쇠 살미면 문산리 경로당]

[구연일시] 1996. 4. 26 오후

[조 사 재 서대석, 정재민, 김형금, 김선아, 임지오
(제보자는 제원군 한수면 덕포리에서 출생하여
서울 등지에서 살다가, 현재는 문산리 경로당에서
기거하고 있다. 「장타령」은 지동수의 장타령을 듣고
난 직후에 부른 것이다. 발음은 분명하지만 목소리
가 작고, 박자도 너무 빨리 불렀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구 또 왔네
/품비품바 자리한다 어절시구두 자리한다/일
자나 한자 들구보니 일구월심 원앙금 천당
침금이 제일일세/이자나 한자 들구보니 이천
년전 우주에서 예수영혼 구하려 이세상에
나려오셨네/삼자나 한자 들구보니 삼위일체
도리배워 삼조사양을 들어라/삼자나 한자 들
구보니 삼위일체 도리배워 삼부전장에 싸워
나보세*/사자나 한자 들구보니 사서심경 도
리배워 성주사양을 읽어나보세/오자나 한자
들구보니 오주예수 오산흔적 바라볼적마다
통고오단 복방일세/육자나 한자 들구보니 육
신폐락 고만두고 영진폐락 힘써보세/칠자나
한자 들구보니 칠십고희 지명복자 칠거칠락
을 다하여서 성신진언을 다셨네/팔자나 한자
들구보니 팔십당년 김노인도 조반침공 열심
하여 진복 팔당에 참여하세/구자나 한자 들
구보니 구풍천신 마귀되어 구령길루나 방황
하세/십자나 한자 들구보니 십자가에 못박히
신 오주예수 복음받어 십계명 굳게지켜 십
자성가 지팡이로 천당길루나 득달하세/에—
느 어머니가 너를 날때 새끼서리나 먹었더
니 서리서리 잘허는구나/느 어머니가 너를 날
때 뜨물동이나 먹었던지 걸직걸직 자리한다/
느 어머니가 너를 날때 찬물동이나 먹었는
지 시원시원 자리한다/느 어머니가 너를 날
때 기름동이나 먹었는지 미끌매끌 자리한다/
에— 이몸이 아래뵈도 정승판서의 자제

로다//(*제보자가 착각하여 한 번 더 불렀다.)

「대감딸의 병을 고쳐준 오관천장」

[구 연재 지동수(남, 72세)]

[구연장소] 살미면 문산리 경로당

[구연일시] 1996. 4. 26. 오후

[조사자] 서대석, 정재민, 김형금, 김선아, 임지오
(제보자가 몇 편의 민요를 부른 후에 숨이 차다
고 하면서 구연한 설화이다. 제보자의 음성은 크고
발음도 정확한 편이다. 두편의 설화를 구연했는데,
모두 서사적 내용이 치밀하고 안정되어 있다. 노래
뿐만 아니라 설화 구연에도 재주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그전에, 참 내 대감집에 딸이 앓는데, 초
당에서 앓기 시작을 하는데, 세상에는 이원
(의원)하구 침쟁이하구 와두 병을 못 고쳐,
그 대감 딸을. 대감이 곤치다(고치다) 곤치다
몬 곤치구 이원이 오구 침쟁이가 오구 벨 벨
사람이 다 와서도 몬 고쳐, 곤칠 수가 없어.
그래 가주구 딸은 이제 죽게 됐는데, 병 고
치러 왔던 이원이구 침쟁이는 다 쫓기(쫓겨)
갔배리구(가버리고) 병을 몬 곤치기 땜에.
그 대감네 집에서 한 삼십리 밖에 사는 사람
이, 그 사람이 와 가주구는, “아 대감님, 내
가 따님을, 내가 병을 곤쳐드리니까 우쭐
겠습니까?” 아 이래니까는 대감이 하는 말
이, “아, 그 사람보다 날고 기는 이원이 와두
못고치구 쫓기 갔는데” 허면서 그 한 삼십
리 밖에 사는 사람, 대감 안면을 있는데 하
두 앓는 사람이구, 그날 뭐 애들만 팔, 구남

매 되구, 버글버글 허구, 때거리가 없는 사람
이란 말여. 대감이 보니까는, “아 그래 니가
우찌 고칠라구 그래니?” “그렇지마는 내가
고치 놓을께루 저한테 맬기(맡겨) 놓으세요.”
그래 대감이 하는 말이, “우리 딸을 곤치 주
면은 내 재산을 내가 반을 띡 비어(빼어) 줄
탱계 곤칠 자신이 있느냐?” 그리 물었던 말
야. 그래니께루 그 사람이 “내가 곤치겠다”
구 대답을 했어, “그럼 대감님, 나 시키는대
루 꼭 하시야지, 한 가지라두 어긋나면은 때
님 병을 못 고칩니다.” “그래 뭐나?” “오늘
저녁에 경워는 띡 허구 돼지머리 허구 지물
삼색 실과구 뭐구 사다 논거 넬 저녁에 쓰면
안 되구 넬이구 날마다 새루 사다가 쓰야지,
썼던 거는 쓰면 안됩니다.” “아 그래, 그럼.”
대감이, 대감에 집이니께는 읊는게 있겠어.
“아이 그럼 내가 썼던 거는 안 쓰구 꼭 새루
사다가서 진설을 해 줄테니께루 그쯤 알라
구.” “그래라.” 구. 그래허면서 이제 오늘 저
녁에 경을 씀 읽는거. 씀, 첫날 저녁에 아 이
눔으거 초지녁부터 밤 열한시만 되든 끝나
는데, 만날 무릎꿇고 앉아서 오관천장 관운
장만 찾는거. 땀마디 한 마디두 안하구. 웅,
“오관천장 관운장 오관천장 관운장.”하구 이
러구 열시만 되든 띡 끝나가주구 거 지물 차
리는 거는 띡하구 쌀이구 뭐구 썩 가주 가는
거. 지가 다 가지가는거. 예나면 저두 애들
팔구남매 되기 땜에, 애들이 전부 굽다시피

하는게루 그놈의 거 갔다 애들 맥이 살려야
될 거 아녀, 애덜 갔다가. 그래 인제 저녁마
득 그렇게 새루 차리는게여, 새루. 그래 인제
속달 열흘을 읽어야 한다구 그래가주구는
속달 열흘을 읽는거.(청중지가 갖다 맥일리구
그렌거) 웅웅 인제 그래니께 (청중들이 잠시 흥
미있다는 듯 문답이 오갔다.) 인제 그러니까 저
는 이래 죽으나, 애들 짚기(굶겨) 죽으나, 이
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개 매련이구던 읊
어 사니께 아무것도 읊이 사니肯 그래가주
구 참말루 속달 열흘 마지막 저녁에 경을 읽
는데, 한 밤중—됐는데 오관천장 관운장을
찾구 있다 허니께루 읊(오늘) 저녁으만 넘어
기면은, 날만 새면은, 대감 딸 병을 못 고치
면은 저는 죽는거여. 대감한테 죽구, 애덜두
다 죽는거야 아주 그만 야 인제 귀가 매힐
거 아녀. 을 저녁이 마지막인데 병을 못 곤
치 놓구. 대감 딸 병을 못 곤치 놓구. 이눔의
딸은 천상 대감네 초당에서 혼자 꿩꿍 앓구
있는데, 아 함밤중이 넘었는데 새벽 한 세시
점 됐는데, 아주 그날 저녁에는 날새두룩 오
관천장 관운장만 찾구 이래 앉아 있는데, 새
루 세시점 됐는데, 오관천장이 참 과거보러
가느니구 말을 타구 가는데, 마부더러, “말
을 좀 빼라. 이게 뭔 소리가 난다. 좀 들어가
뵈라.” 오관천장이 인제 그 말물구 가는 그
마부를 딜이(들여) 보냈어. 가서 가만히 디다
보니께, “한 마 아주 만반진수를 차려 놓구

오관천장 관운장만 찾구 앉아 있습니다.” 인
제 나와서 얘기할 거 아녀. “옹 그래.” 인제
과거보러 가다가선 인제 밤에 그렇게 된 거
여. 인제 말을 새루 매구서는 오관천장이 들
어가 봤어, 그 경 읽는 데를. 이거 마부하구
들어가 보니께루 참말 앉아서 오관천장 관
운장만을 찾는데, 그래 인제 그 사람을 불러
기주구 “이 매칠 지녁을 읽는거냐?”구 하니
꺼루, “그런게 아니라 속달 열흘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 대감 딸 병을 못 곤치 주
면은 나는 죽는 사람이니까루,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다.”구. 이렇게 예길 하그당. 그래서
아, 그래서 인제 오관천장이 가마—— 생각하
니께루속달 열흘간을 그렇게 빌었으니 자계
를(자기를) 빌은거지 아녀. 자계를 빌은거여.
자계, 오관천장을 빌은거여. 사뭇 그래가주
구 오관천장이 그 경 읽는 사람을 불러 냈
어. 비깥으로, 애 불러 내 기주구서는 (그 사
람이) 하는 말이, “인젠 날을 새든 나는 죽을
사람이니까루, 오관천장 관운장님 이거를 으
티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키는대로 꼭 해
라.” 오관천장이 얘기 해 주는거여. “그 인
제 대감네 집에 바루 그 안방 문 앞에 지붕
을 치다 보면은 새굴이 있을거다. 웅, 새굴
이 있는데, 거기 손을 느(넣어) 보면은 뭐가
있을 테니까루 고걸을 끄내다가 태워 가주
구서 냉수에다가 타서 환자를 맥이라.” 그래
구 고만 오관천장은 그만 가빠린거. 그거만

알커 주구는 게 날이 훤히 셨는데, 경읽던 사람이 대감한테 애길 해 가주구, 그 새 다리(사다리) 갖다 달라구, 그 종 좀 불러 달라구. 그래 인제 대감이 종을 불러 가주구 새를 갖다 놓구 불잡구 올려가 보니께루,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지만은 옛날에는 산에서 물골을 캐 가주구 물골깝기 맨들잖어유. 물골깝기, 그걸 하마 몇 십년 됐는데, 전부 물골깝기 (청중이 안다는 듯 끼어들자) 웅, 그 물골깝기가 거기 들은 거를 끄내다가 참말루 참말루 오관천장 관운장 시키는대로 했지. 그놈을 끄내다가선 환자에게다 갖다 맥였어. 맥있순께루 한 서너 시간 되니께루, 그만 대번 일어나 냉기는게여. 대번, 그거 뭐, 뭐뭐 죽게 앓던 대감 떨이. 그기 인제 사가 돼 가주구, 그기 사가 돼 가주구 대감 말한테루 간거라구. 그래가주구 병은 완전히 곤치 났지 인제 그게 오관천장두 과거보루 가가주구는 아 참 과거에 당선돼 가주구 암행어사를 했네. 오관천장두. 속달 열흘간을 다 게만 위해 났옹께루 안될게 어딨어. 웅 그래 가주구는 인제 대감에 땅, 재산 반증 되는거 딱 반 은구. 오관천장에 암행어사 해 가주구 내리와 가주구 그 사람이 또 재산 보태 줘. 아 뭐뭐뭐 대번 배락부자다 됐지. 그래가주구 (청중 다 났구?) 웅? 아, 났지 그럼. 났지, 났지 말구요 그 오관천장이 거거거 갈기(가르쳐) 주구 간거여 그거를, 약을. 그래

가주구 (청중: 이인여, 이인) 이인이지 그럼. 그래가주구 부자가 돼서 잘 살았어. 잘 살았대. 예전에 (청중: 지금두 살어?) 웅, 아이 죽었지, 하마. 옛날 얘긴데 벌써 죽었지, 허허허(일동 웃음).

「산삼을 뺏으려다 벌받은 부자 1」

[구 연 재 지동수(남, 72세)]

[구연장소] 살미면 문산리 경로당

[구연일시] 1996. 4. 26. 오후

[조 사 재 서대석, 정재민, 김형금, 김선아, 임지오]

어떤 사람이 참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야 이놈으거 참말루 뺏거리가 끊어 가주구 질질 매는데, 애덜은 한 육, 칠남매 되구. 남의 집에 가서 품 하루 팔아 와야 옛날에야 뭐 하루 팔아야 뭐 하루도 못 시는거. 아이구 애덜은 밥 달라구 찍찍거리구 올구. 그 사람이 맘이 아주 고 징여. 그 마음은 아주 고귀하여. 그래 인자 그 부자놈의 집에 가서 쌀 한 뜻박 갖다 먹으면 대번 일해 주어야 되구 그놈으거 견딜 수가 있어. 그래 가주구 두 내우가 밥에 자는데, 인제 한탄을 한 거여. “아이구, 우째 아무것이든 저래 부자루 사는데 우리는 뭐가 우티게 돼서 이렇게 어렵게 살구. 밥을 읊어다가 그걸 또 죽을 췄 가주구 애덜을 맥이게 되니 무슨 복이, 이런 복이 어디 있나?”구. 두 내우가 한탄을 허구 있는데, 한밤중 쯤 돼 가주구 둘이 잠이 들었는데, 아 남자한테 꿈을 꾸는데,

“산이 어디어디 가면은 뒷골 가면은 삼밭이 있으니깐두루, 그 삼을 캐다가 애덜을 좀 맥이 살리도록 해라.”구. 남자한테 꿈에 현몽이 되여. 아 또 그 여지한테루 현몽이 되여. 그날 저녁에 그래 두 내우가 께 가주구는 서루 꿈얘기를 했어. “아유 자다 보니께루 뒷골 어디 가면은 삼밭이 있는데 꿈에 이령기 보이니 이거 우티게 해야 옳으니?”구. 남편이 그래니께루 아 그여자두, “아이구, 꿈을 그렇게 꾸었느냐?”구. “나두 꿈을 그렇게 똑같이 꾸었다.”구. 그래서 이제 꿈을 꿨는데, 아 이눔으거 삼밭을 가서 캘라니 가서 생뫼래두 한 그릇 지 놔야 되잖아. 밥이라두 한 그릇 해놓구 캐야지 그냥은 안 보이거던 그 기. 야 이눔으거 쌀이 있으나지. 웅 참, 거. 이웃에 거 될만한 집에 가선 쌀 반되만 꾸 달라구. 그러니까는 아주 두말없이 꾸 주구던 그래가주구 두 내우가 저녁을 먹구 끄 쌀을 가주구선 생뫼를 지 올리구. 참 절을, 고사를 허구 허니께루 삼을 캤단 말여. 삼을 뭐 이런 거를 몇 뿌리 캤는가 봐. 그래가주구 거 부자눔이 부자루 사는 사람이, 아무것이는 삼을 캐 왔다구. 동네서 그럴 것 아녀. 산삼을 캐 왔다구. 그랜께루 그 부자눔이 그 사람을 불렀어. “아이구 우선 그 삼을 내가 살탱까 날 달라.”구. 그래 이제 삼 캐온 사람두 어디루 팔려 갈라니 뭐 부자눔이 산다구 허니깐두루 어린이(어련히) 값 잘 쳐 주

겠지 하구는 캤단 말여. 그랜께루 삼을 가주웠는데 아이 우선 저녁이나 해 먹으라구 쌀을 두 되 주그던 그래 쌀을 두 되, 가주 와선 애덜 지녁을 해 먹이구 이제 그 이튿날 이제 그 쌀을 주민서 그랬어, 그 사람한테, “난두 산삼을 몰르구 그래니께루 이 삼을 솔에다 삶어 가주구 풀어지면은 산삼이 아니다. 그럼 삼값을 못 주겠다. 안 풀어지면은 삼값을 주구.” 아 부자눔이 이렇게 예길 허네. 야 그래서 이제 이 삼 캐가주구 온 사람이 그 부자눔 예기하는 소리만 듣구 설마 삶으면 안 풀어지겠지. 설마 삼이 풀어질 리가 만무라구. 이 사람은 맘을 먹구 있는데 그 이튿날 거 일꾼눔을 시키 가주구 거 뒷밭에 가면은 뽕나무가 있는데, 뽕나무 죽은 거를 해 오라구, 해 딜이라구. 웅웅 그래 가주구서는 그눔을 뽕나무를 죽은것 전부 비 딜이 가주구서는 그 누울 페 가주구 뽕나무 장작을 때 가주구 삼을 삶았어. 뽕나무 하구 삼 허구는 생극여. 웅, 고만, 이눔의 삼이 고만 물이 다 됐뿌리구, 확 풀어지구 삼이라구는 하나두 없어. 삶은 것이. (청중: 애마시식으로 혈라구.) 웅 애마시식으로 해 가주구 지가쳐 먹을라구 그 부자눔이 웅 그렇게 헨 거여. 삼값 안 줄라구. 야 그래가주구 삼을 삶은 거를 한 그릇 떠다가 말루(마루)에 놓구서 삼 캐온 누울 불렀어. “여보개, 이게 산삼이 아닐세. 웅, 삼을 삶으면 풀어지지 않는데

이게 풀어지니 산삼이 아니다. 삼값을 못 주겠지.” 게 두 내우가 산삼을 캐긴 꼭 켜는데, 밤에 선몽 돼 가주구 캐 왔는데, 그놈이 아니라네. 아니래니 유타게. 그래니 뭐뭐 쌀만 두 되만 읊어먹구 말었지.(일동 웃음) 으웅, 쌀 두 되. 그래가주구 말루에다 떠다 놓구는 아 이 사람이 삼삶은 그 부자눔이 삼값 못 준다고 그래는 바람에 이 사람은 그만 하두 눈이 깁깝해서 인제 대문 바깥을 나오는데, 막 나와서 넘어섰는데, 이 퀸(주인)이 그걸 한 모금 들이 마셨어(마셨어), 그걸. (청중: 직사허지 그럼) 웅 그걸을 한 모금 들이 마셨는데 대번 쪽 뻗었어. (청중: 직통으로 가지.) 대번, 직통으로 벌을 받아 가주구, (청중: 천벌을 빙어 가주구?) 웅 천벌을 빙어 가주구 그 산삼을 제값을 주구서 먹었으면 팬찮은데, 고 살벌을 받아 가주구 그만 금방 죽은거여. 그래 가주구 부자 사람 그 마누라가 나와서 보니 깨루, 아 영감이 마루에서 그만 슬쩍 나가자 빠지더니 그만 뻗어 버려. 그래서 인제 그 인제 그 할멈도 한 모금 먹어 봤어. 아, (청중: 할멈두?) 웅! 할멈두 마저 죽어 버렸어. 마저 그냥. (일동 웃음) 그래 가주구 그 아들눔 덜이 막 그 사람을 불러다가 웅 (청중: 그 인제 옥을 보이는거지) 그렇지. 이제 사약을 어디서 캐와서, 캐와 가주구 어무이 아부지 다 죽었다구. 웅 그래가주구는 어무이 아부지가 약을 먹구 죽었는데, 에이 나두 한 모금 먹

어 본다구. 그 아들눔도 한 모금 먹었어. 아, 끔찍두 안해. 그만 짹 죽어 버렸어. 웅 그래 그래서 그 집어서 내우 죽구— 아들눔 하나 죽구— 그 동네 사람이 다 산삼이라구 해는데, 그놈이 그냥 산삼값 안 주구 그냥 그냥 쳐먹을래다가, 고만. 그래 사람이 마음을 잘 써야 되여. 마음을 잘 써야지 허허. 그런 놈이 있었어. 예전에. 마음을, 은재든지 인제 마음을 잘 써야 좋은게여. (청중: 그땀시 뿐 허면은 죽게 매련이지.) 죽게 매련이지. 그게, (청중: 죽어야 되구) 죽어야 되지. 삼벌을 받아 죽었거던. 그게 삼벌을 받아서 그림. (청중: 그 놈이 사는 사람을 뱋어 먹을리구 허는 놈은 그 죽어야지) 아 그럼 죽어야 되구 말구. 또 그 래구 옛장 그 부자루 사는 놈이 기왕 산삼사 먹구 저한테 좋으라구 사 먹는데, 쌀이라 두 그 몇 짹 주구 사먹지. 그걸 부자루 사는 놈이 그지(거지)를, 아유 공거투(공짜로) 뱋어 쳐먹을래다가 그런, 그래 맘장을 잘 쓰야 된다구. (청중: 정심 정도만 가지면 별일 없어.) 아, 별일 없지. 도독놈여 그놈이. 도독놈.

「산삼을 뱋으려다 벌받은 부자 2」

[구연재 윤창열(남, 73세)]

[구연장소] 살미면 문산리 경로당

[구연일시] 1996. 4. 26. 오후

[조사자] 서대석, 정재민, 김형금, 김선아, 임지오
(지동수의 설화 구연이 끝난 후 즉시 구연해준 자료이다. 지동수가 민요와 설화를 구연하는 동안

윤창열은 옆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갑자기 구연을 시작해서 첫 부분이 분명하지 않다.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유사하지만 결말부분에서 차이를 보여 준다. 윤창열은 살미면 문산리에서 출생하여 평생을 살아왔다고 한다.)

여기 앉은 이 친구도 (한구절 정도 채록 불가.) (조사자: 그 문산리 사람예요?) 거시기 대소 실면이죠 아니 저 조동면 거기 김, 아주 김 선달네가 백판이란 말여. 그집에서 배를 맷 천 가마 했어. 그전에, 근데 강원도 사람이 산삼을 들을 캐 가주 왔드라서매 갔다 줬다 말여. 팔아 먹을라구. 그러니까 인제 약속을 했어. “내가 먹어 보구선 삼꽃이 나면은 그 천 낭을 주구 만약에 이 삼꽃이 안 나게 되면은 저기 못 주겠다.” 그 사람 그 분명히 산삼을 캤으니깐 삼꽃이 날 절을 으레이 안 거란 말여. 그래 그 가라구 그랜거여. 그래 그대가주군 뭐 사랑에 이렇게 자리구 해 놓구 산삼 들을 달였단 말여. 색깔이 돼니 먹네. “집수슈.” 먹구, 들어 먹구. 그래 바루 녹두물을 대번 마셨어. 게 녹두물을 먹었으니까 삼꽃이 안 난다 말여. (청중: 아 녹두물! 야 마시지.) 게 아마시지. 녹두물을 먹으문. 그래 보는데 먹긴 먹었는데, 들어가선 녹두물 해 먹었어. 해놓구서라니그 사람이 같이 자는거지. 그 사람이 같이 자는데 삼꽃이 나야지, 하두 안 난다말여. 그런께, “아하 내가 산삼을 잘못 캤거다.” 암만해도 으티겨. 그래 그 낭 갔어. 가는데 이 사흘만에 죽었단 말여.

이놈으거 아 열이 속으로 들문 죽는거. 삼은, 그 열이 나와야 그치 꽃이 안나면, (청중: 꽃이 열인데, 그기 열이 비치는기.) 그게 열이 나와야 시는데 열이 속으로 드는게 죽었단 말여. 그렇게 그 아들이 알았어. 알구선 우리 아부지가 글러서 돌아 가셨스니깐 참 되지 않는다. 그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업구오다시피 했어, 택에 기별해. 그래서 천낭을 내줬다 말여. 그 아들자리가, (청중: 거 양심이네) 양심이지. 그래서 천 낭을 그 영 안 받아서 하는 거를, “산삼을, 산삼이 다 우리 아부지가 이거 참 맘이 뛰여어서, 그 약을 녹두물 해 먹어서 꽃을 못 나오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당신이 하이튼 에 산삼 캤거지 잘못이 아니다. 천 낭을 받아라.” 게 아들이 천 낭을 깊어 졌다 말여. 웅 그래 그대가 한 이십대 되는 동안 잘 살았어. 그대가 시방두 김선달네가, 아들네가 아직두 김해 김가 김씨대가 전부다 백판이여. 지마, (청중: 지마?) 기마, 기마 김서방. 충주 가면 요기 충주. 내 그래서 거기서 그 얘기 한번 들었어. 근데 그 자손대가 몇 대 잘 살았어, 그래.

「처녀의 청을 거절한 신립장군」

[구연재 배유현(남, 72세)]

[구연장소 살미면 문산리 경로당]

[구연일시] 1996. 4. 26. 오전

[조사자 서대석, 정재민, 김형금, 김선아, 임지오
(함께 모여 있던 노인들이 충주지역의 전설을

이야기하다가 구연한 설화이다. 그래서 서두부분이 산만한 편이다. 신립장군이 배수진을 쳤다가 폐전한 이유를 일본의 미인계로 해석하고 있어서 아담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저기래, 지랭이, 지렁이 저길 타구 났대.
(청중: 지랭이 형) 응 신립장군이, 그 충주에 나와 가주구선 지내오다가 한집에 오니깐 초상이 났드래여. 났는데, 가서 그 색시 혼자 그 즈 아부지 죽었다구 올구 있으니, 그 기 보구서 그냥 올수가 있어. 그래 장사지내 주구선 나오는데, 색시가 몸이래두 보답을 하겠다구 말여. 딱 나서는 것을 신립장군이, “난 시방 큰 일하려 가는 사람이니까 안된다.” 이래구는 딱 거절허구는 나와 왔는데, 신립장군이 요 조만큼 가 보니께는 지붕 꼭 대기 올려 (청중: 불을 칠렀대요) 응 밑에다가 불을 질루구선 응 지붕 꼭대기 올려가서 타 죽었다 얘기여. 그래구선 부턴 아 꿈을 꾼 그 여자가 나타나선,

“워디 가 싸워야 이긴다. 워디 가 싸워야 이긴다.” 그 저 참 말하자면, (청중: 일본이 미리 시켜 가주구, 미인계를 썼다는군) 안 되게 하는겨. 신립장군 안되게 하는 거라구. 그래 여기 인제 새재 관문에 거기서만 전장을 했으면 승리를 할건데, 여기서 싸우믄 안된다 구 자꾸 귀신이 땡겨. “여기서 싸우믄 안되어 나께 탐금대루 가라.”구. 그래 탐금대루 가기구 (청중: 거기가 딱 종지분데, 전쟁 원래 못 이기는 자리여 그냥) (청중: 그러면 그 여자 귀신이

그랬다는거군.) 그렇죠. (청중: 꿈에 나타났다는게지 이게 미인계 썼다는거) (구연자: 그러면 그 여자허구, 여자가 신립장군한테 시집오구 싶었는데 거절해서 그랬건가요?) 그렇지, 여자가 사모하는 거지. 여자가 마침 부친상을 당해 아무것도 없지, 부녀 살다가 그랬으니까. 그래 몸으루 래두 보답하겠다구 하는데 반대를, ‘난 지금 큰 일하려 가는 사람이니깐 일없다’ 말여. 널 ‘워디 가 잘 살아라’ 했는데 그쵸, 자살한 셈이지.

나. 가금연, 노은연, 신니면 일대

‘평강 채씨와 『龜旨歌』’

[구연 재 채규상(남, 83세)]

[구연장소] 가금연 하구암리 중구 채규상씨 댁

[구연일시] 1995. 4. 24(수)

[조 사 재 손태도, 장시팡, 김경화, 김성준, 채숙희
(조사자들 속에 평강 채씨인 채숙희가 있던 우리 조사들은, 4월 24일 저녁,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구암리에 도착했다. 그리고, 답사 자료집에 있던 「평강 채씨네 거북돌 이야기」를 아는 분이 있는지 동네에서 물어, 구연자의 집을 찾아갔다. 구연자는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셨다. 또한 귀가 어두워서 거북이 이야기를 듣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구연 과정에서 옆집에서 오신 역시 평강 채씨인 노인분이 간간이 거들곤 하셨다. 그런데 이 구연자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조사자들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平康蔡氏의 조상이 거북이란 전설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우리 나라 고대 가요 『龜旨歌』의 해석에 있어, 이

노래는 거북이를 토텐으로 섬기던 부족의 노래란 해석도 있었다. 그럴 경우, 우리 나라에는 거북이를 선조와 같이 신성시 하는 씨족이 최소한 하나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평강 채씨네 거북들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평강 채씨의 조상이 거북이란 이야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참고로 「평강 채씨네 거북들 이야기」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가금면 하구암이에 얼궁산이라고 부르는 산기슭에 걸피기라는 마을이 있고, 반대편 산 너머에는 안풀이 있다. 두 마을에서는 매년 정초 때면 분쟁이 벌어지는데, 뒷산의 거북들의 뒷부분을 자기네 마을 쪽으로 들려놓아 풍년이 들게 하려는 때문이다. 거북들은 끝내 흙으로 묻혀버렸으나 안풀은 마을은 흥년이 계속되었고, 걸피기의 채씨들은 더욱 번성하여 거북의 은혜를 잊지 않고 화강암으로 거북을 세웠다.”『내고장 전통 가꾸기』(중원군 발간)

(손태도) 할아버지, 순서를 갖춰서 내력을 처음부터 얘기해 주세요. (채규상) 그거 뭐, 그 나도 확실히 몰라요 예전에 전설로 해서 내려오던 건데, 옛날에는 거북이가 천연적으로 된 거를, 우리 인제 전설로 들은 얘긴데, 이렇게 서로 거북이 궁덩이가 그리가믄 저 동네에서 풍년이 들고, 또 인제 그러니까 이쪽에서 가서 굴려 놓는데 나뭇대를 가지고 가서 막 이렇게 지레질을 해서 돌려놓으면 이쪽에 인제 풍년이 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꾸 그러다 보니깐 그만 이렇게 돌멩이가 아문 것 같으면 하지만 천연적으로 된 거니깐. 근데 그게 그렇다보니깐 망그러졌대요 없어졌대요. (손태도) 거북이가요? (채규상)

예. 그래서 인제 우리가 여기 해논 것은 거기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거북이 자손이요 거북이 자손. (손태도) 그건 왜 그렇습니까? (채규상) 저 그 역사에 내려온 거 보면 거북이 자손인데, 그래서 그 어느 학자들이 해놓으라 그러던 거래요. 그 저 거기 원래 예전에 그런 역사가 있는데 없어지고 그랬으니깐 인제 전에도 채씨가 거북이 자손이 되니깐 해 놔라 그러면 좋다고 그래서 그 해논 거예요. (손태도) 원래부터 채씨들이 거북이를 만들었던 모양이죠? (채규상) 아녀, 그전에는 안 맹글었어. (이웃 노인) 그전에는 산에 돌 자체가 자연석으로 된 거라고 (손태도) 그러면 지금 거북이는 만든 겁니까? (이웃 노인) 만든 거는 파손이 되어서 우리가 맹근거고 (손태도) 거북이 새로 만들어 이렇게 두시니깐 동네가 풍년이 많이 들고 좋아졌습니까? (채규상) 모르겠어요. (이웃 노인) 그거 전설에 의해서 그런거지. 사실 그거해 놓고 도움은, 뭐 ‘풍년이 든다 흥년이 든다’는 거는 어디까지 증거가 나타난 적은 없어요. (손태도) 그럼 자연으로 된 거북이는 언제쯤? (채규상) 파손된 거는 언젠지 몰라요. 그래서 여그 하구암리가 그 예전엔 그래서 거북 구자를 썼어요. 그래서 인제 왜정때 가서 일본놈이 거북 구자가 획이 많고 쓰기가 힘드니깐 아홉 구자로 곤쳤어요. 그건 일어. 내 선친이 그때 이장을 보았는데

거 지금 서적에도 거북 구자 여그 있어요
 아홉 구자가 아녀.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아홉 구자로 곤쳤다고 쉽게 쓸라고 그래서
 원래는 구암리라는 게 하구암리가 그그 저
 그 산에 거북이가 있던 걸로다가 그걸로 인
 해서 구암리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봐, 하구
 암리라고, 예전에. (손태도) 거기, 채씨 성이
 거북이에서 유래했다라는 얘기를 좀더 자세
 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웃 노인) 대동
 보에 서두에 그게 어디 나온 것 같던데. (채
 규상) 아니 저. (이웃 노인) 중국서 우리 성
 은 거잖아. (채규상) 근데, 그 예전 역사에
 혹은 전설에 들리는 얘기는 못이 있다네, 못.
 이제 그 못으로다가 뭐가 왔다갔다 하는데,
 나중에 결국은 보니까 거북이가 못으로 들
 어갔다고 그래서 명주실을 이렇게 거기다
 표시를 해서 이제 그 실을 따라서 그 연못으
 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근데 그거 뭐 전설의 얘기니깐 믿을 수가 있
 나, 어떻게 되는 건지. (손태도) 그러면 옛날
 못이 있었던 자리 같은 곳은 그런 곳은 아직
 도 전해집니까? (채규상) 모르죠, 그건 거기
 뭐 어딘지, 그건 얘기만 그렇지. 근데 뭐 족
 보에 그거 있지, 있어요(족보 등 책들을 뒤
 짐) 그 어디 있는데. 여긴 없는데. 족보에는
 없는가 보오 이렇게 갑자기 오니 알 수 있
 어야지. 어디 책에 나오는데 못 찾겠단 말요
 (채숙희) 선배님, 제가 그 유래를 알거든요.

(채규상) 여긴 없는데. (이웃 노인) 충주시
 교인동에 가면 채성섭이라고 역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채숙희) 할아버지 몇
 대시죠? (이웃 노인) 할아버지 23대. (채숙
 희) 저보다 한참 높으시네요. 저는 27대거든요.
 (손태도) 숙희가 한 번 이야기해 보지.
 (채숙희) 저는, 이건 들은 것도 아니고요 족
 보에서 본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 우연히
 본 건데, 옛날에 처자가 살았는데, 그러니까
 밤에 어떤 누군가가 자고 가더라, 이상하니
 간 집에서 명주실을 갖다가 매 두라고 했는
 데, 나중에 가니까, 실을 따라 가니까 거북
 이, 못에 사는 거북이더라, 거기서 자손이 태
 어나서 시조가 되었다는… (채규상) 그, 이
 야기 들었는데. (일동 웃음) 들었어. 우리, 난
 또 금방 잊어 버려서 못 된거. 원기지를 못
 혀요. (손태도) 그, 채씨 성씨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채규상) 많이는 뭐, 많지는 않아
 요. 저기 전라도도 많아요, 전라도도 많아요,
 전라도 익산, 군산, 익산으로 많아요(손태도)
 채씨가 다른 채씨들은 없습니까? (채규상)
 있지요. 저기 경상도 문경, 거기는 인천이요
 인천, 인천 채씨. 인천 채씨들이 많이 살아
 요. 저에 우리 평강하고 인천하고는 큰집,
 작은집이래요(손태도) 원래는 같은 조상에
 서 내려 온 거네요(채규상) 그렇지. 한 할아
 버지 자손이니까.

(조사자를 마치고 돌아와 평강 채씨의 족보를 찾

아 보니까 신라 시대에까지도 이르는 여러 유래담들을 소개한 뒤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실려 있었다.)

“其外傳說 옛날 平康에 사는 어느 大家 집 규수가 婚前에 임태를 하자 父母가 이를 캐어 물었더니 밤만 되면 낫모르는 美少年이 나타나 密房을 한다기에 허루는 명주실 꾸리에 바늘을 꽂아 웃깃에 달게 하였더니 다음날 아침에 명주실이 집앞에 있는 연못으로 들어간 것을 發見하고 끌어 당겨 보니 意外로 五色 영통한 큰 거북이 끌려 나와 둑 뒤에 바늘이 꽂혀 있어 거북이 화신임을 알았으며 그後 규수가 玉童子를 낳자, 그當時 임금이 이 情을 아시고 姓을 蔡(거북 채: 점 치는 데 쓰는 큰 거북)로 本貫을 平康이라 贈姓하여셔서 지금도 蔡氏의 象徵을 거북이라 傳해 오고 있다.”『平康蔡氏大同譜』(회상사: 1991), 82면

「자린 고비 이야기의 주인공」

[구연재 장기덕(남, 충주 미덕중학교 교장으로 계시다 정년 퇴임)]

[구연장소] 충주의 제보자의 자택

[구연일시] 1996. 4. 25(목)

[조사자] 손태도 장시팡, 김경화, 김성준, 체숙희
(조사자들은 이를 간의 조사를 마치고 저녁 무렵 충주로 들어와 조사자들이 배당받은 지역이 아니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많이 이름을 들은 장기덕씨(『中原 鄕土記』, 『中原 鄕土記』, 일조각: 1979)를 출판하신 향토 문화 연구가로 향토 문화와 관련 방송 출연도 오래하셨음)를 마지막으로 찾아가기로 했

다.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구두쇠형 민담 「자린고비 이야기」가 실존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에 관한 장기덕씨의 제보이다. 실제 인물에 관한 이야기에서 출발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덧보태어 지어진 이야기로는 「암행어사 박문수 이야기」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자린고비 이야기」와 관련된 장기덕씨의 조사로 인해 우리는 이러한 類의 이야기에 「자린고비 이야기」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된 것이다.)

(손태도) 그게 저 선생님, 자린고비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조사자들은 장기덕씨가 외출해서 돌아오시기 이전에 「자린고비 이야기」를 장기덕씨가 특별히 조사했다는 이야기를 사모님에게서 들었다.) (장기덕) 자린고비를 에 그 저 취재한 것이 어디 나왔었는데, 자린고비라는 것 이 자 어질 자자하고 어질 인자하고 지애비고자하고 에 비석이란 비자하고(慈仁考碑) 그게 자린 고비여, 자린고빈데 그 여기서는 「자린고비」, 「자린고비」 하거든. 근데 전라도에 가면 전라도 자린고비고, 경상도에 가면 경상도 자린고비고, 서울에 가면 용인 그쪽에 가면 거기도 자린고비가 있어. 충주에는 거기 또 자린고비가 있어. 자린고비가 김일성이 마냥 여기가 번쩍 저기가 번쩍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내가 추적을 했어, 자린고비가. 그러니까 학생들을 통해서 자기 향토에에 특별한 역사적인 설화 건 이런 것을 수집을 하니까 ‘여기 신니면에 자린고비 산소가 거기 있다.’ 야 이기 이상하다. 자린고비 산소가. 아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 알아 본 거여. 횟이란 동네가, 그 동락이란 데가 있어

요.(충주시 신니면 동락) 저기 저 김 무슨 여사 오일육 아니 그 육이오 때 신고해 가지고서는 동락 승전비 선 데 거기, 김재육 김재육 여사, 근데 그 부근이란 말이여. 쫓아가서 물으니까 그 학생의 동리를 찾아가서 물으니깐두루 '여기가 자린고비 산소다.' 근데 뭐 저 상석만 요렇게 있고, 망부석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 상석이야 오래된 거. 무덤이야 뭐 평범하기 짹이 없고. 그런데 거기 그런데 거기서 내려오는 맨 지명이 뭐 조천석 용 깨 천석 뭐 했어 삼천석 여기 했다. 그런데 거기 동네에 가서 '산소 주인이 누구나?' 하니 그게 동네에 그 있는 사람 얘기가 '이 주인은 지금 무극에 음성 금암면(충북 음성군 무극 면 금암리) 거기서 양조장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인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산소를 벌초만 해 주고 그한테 가면 알 것이다.' 그래 또 거기를 찾아 간 거여. 무극에 금암면 양조장 하는 사람을 또 한양 조센데, 물어서 찾아가니까, 그사람 찾아가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 선조다. 그래 자기는 그걸 잘 모르고 여기서 어디 가면 삼봉리라고 하는 어느 마을을 찾아가면, 거기 있는 조 이무개를 찾으면 여기 나온다 말이여, 알 것이다.' 그래 그사람을 찾아가서 물으니깐동 여기 얘기를 하는 거여. '우리 몇 대조다.' 그래 이렇게 족보를 보니까, 거기 이제 다 쓰여 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검소한 생활을 해 가

지고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 남도에 흥년이 들었네. 그래 전라도 경상도에 흥년이 들어 가지고 설랑은 그냥 떠거지들이 올라오니까, 그 때 그 사람들한테 무료로 다 줘 가지고, 그런데 이제 경상도에 가면 경상도 사람들이 그저, 조 조륵이야 이름이, 조륵씨의 거기를 공적을 찬양하는 공적비를 거기마다 세우고, 전라도 사람들이, 혜택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거기대로 세우고, 주인공은 하나지만 그사람이 돌아다니며 그 준 사람의 범위가 넓으니까, 자린고비가 이름이 널리 알릴 수밖에. 그래서 그게 조륵이 거기, 인제, 그렇게 적혀 있어요, 족보에. 그러니까 지금 저 내 방에 어딘가에 그것을 찾으려면 한참 되겠지, 전국에 이름이고 뭐고 다 해놨는데. 그러다가 그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잖여? 조기를 사다가 설랑 천장에 매달아 놓고서, 밥 한 숟갈 떠 먹고, 그걸 한 번 쳐다보고, 밥 한 숟갈 떠 먹고, 아들이 한 숟갈 떠 먹고 그걸 두 번 쳐다보니까, '야 이놈아! 어디 한 번씩 보랬지, 두 번씩 보랬나 말이여.' 길을 갈 때는 팔을 이렇게 (팔을 몸에 냉지 않게 별립) 이게 냉으면 마찰을 해서 떨어지니까 말이여. (일동 웃음) 그래 별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지독하게 절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그걸 그냥 자기가 착복한 것이 아니고서는 나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부 아주 다 나눠졌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자손들이 얘기할 때 ‘그 양반의 비가 서 있는데, 자인고 그러니까 어질 자에 어질 인지에비고 자인고(慈仁考) 할아버지의 비다.’ 이런 것이 이제 ‘자린고비’, ‘자린고비’ 이렇게 와전이 돼 가지고 설량은, 자린고비다 하면 용체제하고 지독하고… (부인) 파리도 쫓아갔다 하고, 된장 묻은 파리. (일동 웃음) 그때 왜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장기덕) 아 그게, 파리가 된장독을 이렇게 뚫었는데, 파리란 놈이, 쇠파리란 놈이 그것 을 빨아먹었는데, 쫓아가니까 파리란 놈이 나왔는데, 다리에 된장이 많이 묻었거든. 아 저놈의 된장 아깝다고 쫓아다니네, 이놈이. 여기 저, 얘 아유, 뭐여 자꾸 저, 아 들이름이 있어요 수원 거기 갈 것 같으면, 수원 거기에 또 그런 들이름이 있는데, 잠자리란 놈이어서 툭 뛰어나오더니만 파리를 물고서는 내빼네. 그잠자리를 쫓아서 비찌리를 들고 내빼 간 것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 수원까지 갔어요. (부인) 수원까지 갔으면, 된장은 아깝지만, 신발은 얼마나 닳아? 양말하고. (일동 웃음) (장기덕) 그러한 정도로다, 참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경기도 자린고비나?’ ‘경상도 자린고비나?’ 하는 것을, 내가 가서, 내가 가서, 거기 가서 집안에 가서 족보에서 그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거는 ‘충주 자린고비다.’ 아 그래서 잡지에도 그게 나갔어요. 역사의 뭐

라, 그것이 아마 삼 페이지 정도로다가 취재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예기도 어디 나오지 왜. (中原 鄉土記24를 뒤적임) 1권에 나오나? 도척, 한도척 얘기하고, 자린고비 얘기하고 (손태도) 고 이야기를 좀 더 조사를 해서 논문집이나 그런 데 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기덕) 자린고비? (손태도) 예. (장기덕) 아, 괜시 접담을 말이야? (손태도) 아뇨,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장기덕) 가만 있어 봐라. (일동 웃음) (이하 녹음 안됨)

다. 양성면, 소태면, 엄정면 일대

「불효자 이야기」

[구 연재 박기호(남, 82세)]

[구연장소] 엄정면 노인정

[구연일시] 1996. 4. 24(수)

[조 사재 황재문, 류준경, 서정민, 홍식준]

(4월 24일 엄정면 면사무소에서 엄정면 노인회에서 모임을 이 날 노인정에서 가진다는 말을 듣고 설화 체록을 위해 노인정을 찾았다. 7~9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70대 이상의 남성이었다. 소설책을 많이 읽었다는 분이 있어서 소설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더니 몇 가지 질문에 응답했다. 다시 책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어릴 때 들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하니, 노인들 가운데 일부는 운동을 하러 나가고 다른 접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다. 제보자 박기호 씨는 원래 신니면에서 태어나서 젊었을 때 엄정면으로 이주했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이

라고 다른 노인들이 적극 추천해서 그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분은 될 수 있으면 교훈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 주려고 이야기를 추려서 거듭 부연설명을 해 주셨다. 이 이야기에 이어서 다음의 구이산(구의산)을 구연하였다. 「구의산(九疑山)」은 「김씨행렬록」의 개작으로 알려진 이해조의 신소설로 1911년 매일신보에 연재하고 1912년 신구 서림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던 작품이다. 제보자 박기호씨는 신문은 보지 않았고, 시장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책을 둘러 읽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고유명사나 인과적 서술에 있어서는 오류를 보이고 있으나 비교적 정확하게 구술하였다. 인과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질문 없이도 본인 스스로 오류를 시정하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전에는 가정교육이라고 있잖아. 그 가정교육. 시방 애들 교육을 잘 시켜야지 부모가 잘못하면 불효가 되는 거야. 그 전에 한 내외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두 내외가 구여우니까 언제 심심하면 발걸음을 하니까 그것 왔다갔다 하니까. 저 어머이는 “너 아버지가 때려라.” 그러면 쪼르르 가서 저 아버지를 때리고 저 아버지는 “너 가서 어머이를 때리고 만날 교육을 그리 시켜 놨으니, 아 이 너석이 아주 불효가 되서. 아 그래서 결핏하면 저 아버지 상투를 두들겨 ■ 가지고는 또 두들겨 패고 그러거든. 야. 이거 이마다간 잘못하면 자식한테 맞아 죽게 생겼거든. 교육을 그리 가리켜 놨으니 어디 누구한테 가

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아. 그리 큰 일 났거든. 그래. 친구네 집을 찾아가서는 친구보고 그런 얘길 했네. “여보게.” “아이 왜 그러 나?” “자네가 알다시피 내가 참 늦게 환갑 다 되서 자식을 하나 두질 않았나?” “아 그렇지.” “그 그래서 이걸 구엽다고 나는 너 어머일 가 때려라, 저 어머인 너 아버질 가 때려라. 아래 놓으니 잘못 하다간 자식한테 맞아죽게 생겼으니 이거 어떻해야 되나?” “자네 그저 나 시키는대로 하게. 자네 아들을 나한테로 보내게. 자네가 가서 아들한테 가서 아무곳에 친구 한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돈을 안 갚아 준 게 있으니까 돈을 갚아 줘라 그래 가지고 나한테로 보내게.” 그래 가지고 그래 시켰대. 그래 와서는 아무개 한테 돈을 받아오라 그래. 그러니 “아 왜 그래요?” “누구한테 아무날 그 양반이 주신다고 그러니 가서 좀 받아 가지고 오너라.” 그래 그래 가지고 보냈단 말이야. 보냈는데, 이 놈이 저 아버지가 워낙 그랬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전활 하나. 뭐 그러니 이 놈이 통명스럽게 “우리 아버지한테서 여기 돈 쓰신 게 있어요?” “그래. 쓴 게 있는데 그 돈을 내가 쓴 게 아니고 누구 남을 썼어.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갔다 올 테니까, 돈이 됐는지 모르겠다. 여기 잠깐 앉았거라.” 그런데 이 분이 어디 가서 술 먹고 놀다가서는 해거름에 슬 와서는 “애. 그 돈이 오늘 안 된단

다. 오늘 안 되고서 한 사날 있어야 돈이 된다고 하니, 너 왔다 갔다 하느니, 내 집에서 한 사날 있다가 그 돈이 되거든 가지고 가거라.” “그럼 그럴까요?” “그래, 그래라.” “예.” 인제 그 집 아들 한 놈이 있는 것도 웃기는 거. 그 놈이 맘이 나빠서 그러는지 그러니까 그 집 아들 하는 걸 뵈일려고 그러는거. 그 래 그 집에 가만이 있으니까, 그 집 아들이 저녁이면 이렇게 와서 이부자리를 쳐 껌 놓고 주무시면 아버지 춥지 않게 주무셨냐고 문안을 여쭙고, 밥상머리를 오면 아버지 밥 접순 뒤에 밥상머리에 앉고 아 그 놈이 그 제서야 개과천선이 되는 거야. ‘아 이 집 자손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사흘을 뵈 키는 기지. 돈을 주긴 뭘 줘. 그걸 뵈킬라고 한겨. “내가 오늘 돈이 된다니까 돈을 가지고 오마.” “예.” 돌아와 가지고는 돈을 척척 세서는 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서는 너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그 양반이 돈을 직접 쓰신 게 아니고 남을 주셨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 양반 말씀이 너 왔다갔다 하느니 돈이 되거든 한 사날 있다 가거라 그래서 늦었어요 그래서 여쭙고서 그래 돈을 갖다 드려라.” “예.” 아 그제서야 그 놈이 절을 한다 말이야, 그 전에 안 그러 더니. 그래 이 놈이 왔어. 아 이 놈이 와서는 돈을 저 아버지 앞에 갖다 놓고서는 또 저 아버지한테 절을 하고 저 어머니한테도 절

을 하고 그런다 말이야. 그래 저 아버지가 떤히 쳐다볼 거 아냐? 아 이 놈이 개과천선을 했으니 참 이상하다. 그러더니 이 놈이 나가. 그러더니 이 놈이 왔다갔다 하더니 “아버지 도끼 어디서 보셨어요? 아이, 도끼를 찾으니 도끼가 없어요” 아이 저 놈이 돌 아오더니 우리 두 내외를 도끼로 폐 죽이려고 그러나? 겁이 날꺼 아닌가? “아, 모르겠다. 도끼.” 아이 그러니 도끼를 찾아가지고, 그 집에 소를 한 마리 먹여, 그 놈이 도끼 가지고 외양간에 들어간단 말야. 외양간에서 소 대가리를 때려가지고 소를 잡는단 말야. “아 이 놈아. 너 미쳤니? 소를 왜 때려잡고 그러냐?” “예.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불효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를 한 마리 잡아 가지고 노소 전부 어른들을 모셔가지고 불효잔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아 그러니 그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서 노인네들한테 사과를 하면서 그래 불효잔치라. 그래 그렇게 가정교육이라는 게 그 놈이 맘이 나빠서 그런게 아니라, 저 아버지가 가리킬 때 아 그 놈이 귀엽다고 아침저녁으로 너 아버지가 때려라, 너 어머니가 때려라 그러니 이 놈이 그만 불효짓을 하고 그래 가정교육이라는 게 있잖아.

「구이산(구의산)」

옛날에 구이산이라는 게 있어. 고대소설.

그 이야기를 하자면 참 긴데, 오래 있을 수 있어? 허허. 그 구이산이라는 책이, 판서 서판서여, 서가여. 그 전에 판서 지위를 가졌겠어. 30에 혼자 됐어. 홀아비가 됐어. 오백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고지 세 살 먹어서 고만 마누라님이 죽었어. 그래서 원래 판서 지위도 있고 해서 종들을 데리고 사는데, 그 래 대가집이니까 대가집 친구들이 와서 “여보게, 저 대감 혼자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깐 이거 자식을 위해서 “내가 내 피붙이만 데리고 살림을 하다가 나이 먹으면 떠나거나 들여서 살지. 나 재혼 안한다.” “아 그래도 재혼을 해야지. 어떻게 피붙이만 데리고 살림을 하나?” 아 그래도 자꾸 친구네들이 와서 자꾸 권고를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재혼을 하게 됐어. 재혼을 하는데 이동집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재혼을 하는데, 재혼을 하고서 떡 보니까 아 자기 자식한테 아들한테 잘 한단 말이야. 이제 고 때 세 살 먹었는데. 연심이란 종년이 있어, 연심이란 종년이 거기서 이동집이가 ‘애기를 잘 데리고 가 놀아라.’ 그랬는데, 연심이라는 종년이 저이 친구들 노는 데 거기서 거기 애를 놔 두고 놀러 갔단 말이여. 그래 거기 어린애가 열개 가시나무에 손을 찔려 가지고 피를 흘리고 엉엉 울지. 그래 이동집이가 쫓아가 보니까 애기 손에 가시를 남쳐 가지고 피가 났지. 아 연심이란 종년을 냅다 불러가지고는 “어

이년 어린 것을 얘기를 잘 데리고 놀라고 그랬더니, 어디로 가서 혼자 내버려 두고 손을 다치게 하냔 말야? 아 이년 당장 가서 종아리채 해 가지고 오너라.” 그 땐 상전이 가서 종아리채 해 가지고 오라면 해 가지고 와야 되거든. 그래 이제 서판서도 앉아 있는데, 종년을 아래종아리를 훌라닥 뺏겨가지고 종아릴 매립려고 하니까, 서판서가 하는 말이 “아 여보 그만 뒤. 말로 타일려도 그만일 테니까 그만 뒤.” “내가 이년 종아리가 창나게 좀 매립려고 했더니 대감님이 자꾸 그만 하라 하니까 내 이번은 용서하지만, 다시 한번 그랬다가는 그 땐 종아리가 정말 성하지 못할 줄 알아.” 그래서 아 인제 오백이가 한 살 먹고 두 살 먹어 이제 나이가 열 다섯 살이 됐단 말여. 그랬는데, 그 전에는 세상 없다고 참 그시기 하더니 그 집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단 말여. 이번 아들은 참동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그래 아들을 하나 놓아 가지고는 남 보면은 큰 아들을 세상 없다고 하다가도, 제 아들을 이제 그 때는 원적을 죽여야지 그래 재산도 차지하고 하니까 마음을 달리 먹는단 말여. 그래 나이가 열 다섯이 되니까 자꾸 매파가 들어오네, 중신이. 며느리 보라고 중신이 자꾸 들어와서 날까지 택했거든. 이동집 이 여자는 서판서는 한 가지 하려고 하면 두 가지씩 자꾸 하게 해. “아이 여보, 뭐 자꾸 그렇게 해.” “아이구 여보시오

대감님. 그래도 나는 내 속으로 난 자식보다 서모 소리 안 들을려고 그러는데 대감님은 그렇게 맨날.” “아이 모르겠소. 당신 마음대로 하구려.” 아주 내뱉겼어. 한임이 열 두 한임이라고 종 하인들을 다 데려 가라는 거여, 시골 잔칫날. 칠성이라는 하인놈 하나만 집이 적적하니까 두고서 다 테리고 가라는 거야. 그래 미누라 시키는대로 다 데리고 가서 시골 김판서 집에 가서 잔치를 하는데, 거기서 자고 오게 된단 말여. 그래서 오백이가 세 살 먹어서부터 잠을 아버지 곁에서 자서 열 다섯을 먹어서도 아버지 곁에서 잤거든. 그래 이제는 상투를 끌어올려서 망건을 했으니깐 “아이 아버지, 이 망건을 이렇게 쓰고 있으니깐 꿀이 아파요” “아 원래 그런거다. 망건살이 올라야 팬찮다.” 아버지 곁에서 자꾸 자려고 하니까, “오늘은 신방방에 가서 들어가서 자. 처음에 외짜벼선부터 벗기고 그 다음에 옷을 벗기고……” 전부 시켰어. “그리고 요강이 거기 머리맡에 있으니 오줌 바렵다고 아버지 찾지 말고 거기서 다 보고서 내일 일찍이 차려서 가게 해라.” 그래 보냈단 말이야. 그리고 두 사돈끼리 서판서하고 김판서하고 앉았어. 아 그래서 타일러서 또 보냈는데, 그래 놓고서는 이 이동집이가 어려서는 그것 처음에 들어와서는 참동이 놓기 전에는 세상 없다고 그랬는데, 아 이 여자가 저 자식을 죽여야 내 자식이 이 재산

도 전부 차지하고 하고서는 그걸 죽일려고 그리는 거여, 그래서 칠성이 하나만 두고 가지고 하는 거여. 칠성을 불러서는 “너 내 방으로 좀 오너라.” 그래 들어갔지. “네가 아 다시피 내가 여기 와서 참동이를 하나 놓았지 않았느냐?” “예.” “저 자식을 없애야지 내 자식이 조금 재산이라도 차지하고 할 것 아니냐? 너 내 성공을 좀 밀어 줄려느냐?” 아 말씀 하시라고 “너 이 길로 가서 시골 김판서네 집 신방방을 찾아가서 오백이 머리를 베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너도 여기서 종노릇하는 것 보다는 너도 잘되고 나도 잘되니까 그라고서는 내가 돈을 얼마얼마 줄테니까, 네가 싸 가지고 가면은 되니까 그렇게 하거라.” 가만 칠성이란 놈이 생각을 하니, 돈은 욕기가 나나 세 살 먹어서부터 어머이가 없어서 그 불쌍히 큰 서방님을 죽이려 기기가 참 뛰해서 암말도 안하고 있어. “아 말을 해라. 못하겠다느니 하겠다느니 말을 해라.” 그래 한참 있더니 “하겠습니다.” “꼭 하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그래 펴린 보자기 하나를 준단 말이야. “이걸로 허리에다 차고 가서는 오백이 머리를 베다가 거기다가 싸 가지고 오너라.” 그 길로 인제 떠났어. 그 때는 뭐 차가 있나. 그래 시끌로 오백 일 찾으러 갔지. 워낙 큰 대가집이니까 집이 뭐 으리으리하지 뭐. 어느 방에 가서 신방을 찾아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참,

이제 가는 길인데 가다가 보니까 거기도 이렇게 솟을 대문 앞에 기와집인데, 그 모퉁이에서 처녀 총각이 수군수군하면서 떠드는데 보니까 그것도 간부놈이여. “너 아무날 시집을 간다지?” “그럼 어떻게하겠느냐? 부모가 하는 일을.” “그래. 나를 두고 갈려고 그러느냐?” “그래 좋은 수가 있으니까, 신방에 아무날 신랑이 올 테니까 그날 신랑이 우리 집으로 올테니까 신방 차릴 때 와서 그 놈을 처치하고서는 우리들이 야반도주해서 갈 수밖에 더 있느냐?” 아 이러고 얘길 하거든, 들으니까 아 저런 놈들을 의당히 죽여야 되겠다 말여. 우리 서방님을 죽이느니 저런 놈들을 죽여야 되겠다. 쫓아 가서는 단도를 쑙
 ■ 가지고는 그 년놈들을 다 죽였어, 그만. 그래서 죽은 총각 녀석을 들쳐 업고 갔어, 거기를. 총각 녀석을 들쳐 업고선, 그 피가 안 나도록 싸맸거든, 그래 들쳐 업고 가 가지고서는 그 근처에 가서 신방방을 찾을려고 마당에 가서 이리저리 그 대 마침 달은 밝았거든. 그런데, 미침 오백이가 화장실로 뒤가 매려워서 화장실을 찾아 나오는 길이여. 그래, 나오다 보니까 뭐가 마당에 사람이 있다갔다 하는데, 쫓아가 보니까 자기네 집에 있던 칠성이란 놈이 왔단 말이야. “아 너 어째 여길 왔니?” “이동집이, 저 마나님 이 서방님 머리를 베 가지고 오라고 해서 내 서방님 머리 자르려 왔어요. 그러니까 서방

님은 내 말을 들어야지 내 말을 안 들으면 내 이 자리에서 서방님 머리를 잘라 가지고 가겠소” “얘길 해라.” “내가 오던 도중에서 처녀, 총각 년놈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놈들을 내가, 총각놈을 내가 머리를 잘라다가 짊어지고 저 수풀 속에다가 넣어 놓고 여기 왔으니까. 서방님은 아무 때 이동집 손에 아무 때 죽어도 죽을 거요. 그 분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내 말을 꼭 들어야지, 안 들으면 서방님 머리를 잘라갈 거요.” “아, 얘길 해라.” “내 그 시체를 가서 가지고 올 테니까, 그 시체의 옷을 서방님이 입고 서방님 옷을 그 시체에 입혀서 서방님 있던 자리 신방방에만 그 가서 앉혀 두시오” 서방님 나오실 적에 그 신부가 잠이 들었었느냐 그러니까 “아 잠이 들고 말고” “그러면 됐습니다. 서방님 드러누었던 자리만 아리켜 주시오” 이리고서는 모가지 없는 시체를 찾아 가지고 와서는, 이제 오백이 뚱누러 나왔다가 뚱이 도로 들어가게 되는 그 지경이 되었으니까, 아 그래 “아 옷을 벗으슈. 그리고 이 놈의 옷을 입고 있으슈.” 아 그래 할 수 있어? 그래 그 녀석 옷을 오백이가 입고 오백이 옷을 그 놈을 입혀 가지고서는 “가십시오, 어서. 서방님 신방방에 가십시오.” 그 때 신부가 잠이 들어 자다가 자더래요. 그래서 시체를 뉘여놓고서 오백이를 데리고서는 “나하고 가십시오.” 오백이를 데리고 오는겨. 서울 제

집으로. 그런데 가는 길에 마나님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겠거든. 그런데, 이동집 이는 칠성이란 놈을 보내 놓고는 밤새도록 잠이 오나? 이때나 성공할런가 만날 들락날 락 해야지. 대문이 몇 대문이지 그날 말이여. 그래 칠성이가 오백이를 데리고 와서는, “내 가 가서 이 머리 자른 거, 그러니까 총각놈 머리 자른 걸 펴련 보자기애 싸서는 마나님 한테 바치고는 돈을 찾아 가지고 올 테니까 여기 기다리고 계시오” 이동집 여자가, 인기침을 하고서 들어오니까 “칠성이 너 으느나?” “예, 옵니다.” “어째 가서 성공을 이뤘느냔?” “예, 이뤘습니다.” “아 보자” 보자기에 벌건 놈을 쌔서 주거든. 뭐 가다가 다른 놈 모가지를 잘라다가 어떤 놈을 가지고 온 것도 모르고, “아이고, 얘 그 퍼보나 마나다.” 그 집에 큰 고목나무가 있어, 서판서집이. 거기 올라 가서 구녕에다가 넣어라 하니까, 그래 이 놈이 올라가서는 그 보체기에 쌈 것을 구멍에다가 쳐 넣고서는 내려 왔어. 방을 들여다보고는 “천리길을 가야 되니까 돈을 주시오” “들통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망한다.” 그 돈을 받고는 “예” 그 돈을 쌔 가지고서는 오백이를 데리고 나가는거여. 이제 오백이를. “날 따라 가십시오.” 그 러니까 충비여, 그 돈을 제가 먹은 것이 아니라 오백이를 데리고 가니 아이 오백이가 가면서도 자꾸 그 처가집은 난리가 났을 거

구, 그럴 거 아니여. 그 인제 자기 각시도 여자가. 그래서 그거 잊어 버리게 하느라고 아무 데나 사방을 데리고 가느라고 강원도 금강산까지 데리고 갔어, 칠성이가. 인제 그 얘기도 그치고서 이제 얘길 해야지. 아 서판서가 자기 아들 신방방에서 일어나는 걸 기다리는데, 해가 져도 신방방에서 기척이 없네. 그래서 인제 하인놈을 데리고서 “너 인제 신방방에 한 번 가 봐라. 신방방에 어찌 어리 기척이 없느냐?” 신방방에를 하인놈이 가더니 “아이, 문덕에 가나까 비린내가 확 납니다.” 그 비린내가 날 때도 있고 그럴 건데, 아 며느리가 있잖아. “그러면 니가 문을 열어 봐라.” 아 문을 열어 보니 꼭 할 일이거든. 그 때 김소저는 그 때 깼어. 깨 가지고 또 깨무러쳤어. 아 그 여자도 이제 잠이 들어서 자다가 머리맡에서 비린내가 나거든. 그래 확 들치고 보니까 자기 남편 누워 있던 데 송장이 누워있거든. 아 그래 기절할 거 아니야, 여자도 아 그래 깨무러쳐서 자빠졌네. 아 그제야 하인이 서판서한테 와서 “아 큰 일 났습니다.” “큰 일 나다니? 뭔지 얘기를 해라.” 그 얘기를 잘못하고 “아이 큰 일 났어요” “아 이 놈아. 큰 일 났단 소리만 하면 되나? 무슨 얘기를 해야지.” “아이 서방님은 머리가 없어요.” “어, 서방님이 머리가 없다니?” 아 그 것 참, 어려서부터 키운 아들인데 기억힐 거 아냐? 새 사돈이고 뭐고 체면

이고 뭐고 쫓아가서 난리를 칠 거 아냐? 아, 그 아무가 생각해도 여자가 간부놈이랑 그런 줄 알잖어? 아 이제 여자도 깨무러쳐 가지고 주물러 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김판서도 들어오고 내외가 들어와서 어찌 된 건지 대래네, 여자보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다가 비린내가 나고 그래서 일어나서 불을 켜고 보니까 이 지경이 됐습니다. 저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니? 이게 네 짓이지?” 아 딸이라도 속을 알 수가 있어? 아 대래네, 간부놈이, 어느 놈이 와서 이랬는지 대래네. 전 죽어도 이런 일이 없다 이거야. 아 서판서는 하도 기가 막혀 그만 모가지 없는, 남의 송장이지,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고 들것질을 해가지고 그저 메고서 오네. 아니, 김소서는 흰 소복을 해가지고 따라 올려고 그러니까, 내 집안 망하게 할려고 어디로 올려고 하느냐 그리고 못오게 하잖아. 아 그래 하인네들이 시체를 해서 들고 서 서울 동구밖으로 오는데, 아 칠성이 이동집이는 자기가 해 놓고서는 “아 그놈의 집을 쑥발을 맹글어 망하게 해 놓고 오지 아 이렇게 해하고서 내 자식을 죽이는 걸 그대로 두고 왔오?” 서판서가 “하하 여보, 차차 알아서 할 일이지 그렇게 조급하게 할 일이 아냐.” 그럴 껴 아냐? 장사를 지냈지. 장사를 지내고서는 떡 서판서는 머리를 싸고 방에 완전히 들어누었어. 아 이제 김판서 두 내외분은

딸을 두고서 마냥 버려두는 거야. “아버지, 저” 아버지 보고는 못하고 “어머니, 절 보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저도 죽어도 이 누명을 벗고서 죽겠으니까 절 남복을 한 벌을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딸 하나에 무남독녀여, 아들도 없이. 그래 이제 남복을 해 가지고 떡 입하고 머리를 끌어서 망건을 시켜가지고는 초립을 해 가지고서는 보니까 새신랑이거든. 이 여자는 어디로 오느냐? 시집 근처로 왔어. 서울로 서울 와서 서판서집 근처에 거기다 여관을 정하고서는 그걸 내용을 알아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먹을 거 이런 걸 좋은 걸 사 가지고 와서는 부인네들을 자꾸 청하네. 그래 자꾸 부인네들이 자꾸 놀리오고 놀리오고 하필 칠성 어미이도 거길 놀러 왔어. 놀러와서는 칠성 어미이가 하는 말이 “아이고, 저 서방님을 보니까 우리 서방님 생사이 난다.” 그러거든. 그래 아이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아이구, 그래 모습도 합사 우리 서방님같이 달고” “아 서방님은 어떻게 됐는데요?” “아이 우리 서방님은 말도 못 하지요. 세 살 먹어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동집이라는 서모가 그 자식을 참 세상에 없이 길러 가지고 잔칫날을 했어. 아 그 참 하인놈들 죄 데려가고 우리 칠성이 한 놈만 적적하다고 집 보라고 두고 갔는데, 아 그 날 저녁에 우리 칠성이란 놈도 호랭이가 물어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쌈 없어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는 거야. 아하, 그렇다고 김판서 집 그 신부가 간부놈을 사주를 해 가지고서는 서방님을 못되게 해서 그렇게 세상을 떴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서판서집이 여기서 머나?” 그러거든. “아이 멀다니요? 이 집 뒷문을 나가보면 저기 저 큰 기와집 하나 큰 고목나무 있는 저집이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큰 고목나무가 있고 그래. 그 뒷로는 낮에는 심심하면 뒷마루에 나가 보면 꼭 까마구가 그리고 그 구녁을 들여다 보고 까악 그러거든. ‘아, 저 놈의 까마구가 저기에 뭐가 있길래 만날 저 놈의 구녕을 들여다 보고 깍깍거리니 참 이상하다.’ 그래 거기서 하루는 그걸 알려 불려고 가서는 “내가 이 집 떠난지도 하두 오래 되고 인제 한 달여가 되었으니 나도 휴양 삼아 이렇게 나왔다가 내 집이 또 고향에를 갖다가 수일간 오리다.” “아이구 저 서방님 이 와서 우리가 잘 먹고 지낸 날이 적지 않은데, 이렇게 또 가시면 어떻하나?” “예, 수 일간 또 오겠습니다.” 이래서 송별회를 열었어, 또 잔치를 했어. 그래 그 이튿날 떠났어. 집에 와서는 자기 어머니 보고서 아버님 보고서도 “저 인제 여복을 흰 소복을 한 벌 해주시면 제가 시집엘 가겠습니다.” “아이구, 내가 시집엘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글쎄 어떻게하든지 제가 갈 데니까 한 벌 해 가지고

백가마를 해서 어서 보내 달라”고 아, 그래 할 수 있어? 그래 인제 흰 소복을 해 가지고 머리를 해서 쪽을 절러 가지고 백가마를 해서 아래 가지고 갔네. 아 하인들이, 아 저쪽에서 백가마가 들어오니까는 서판서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는 “아 그 김판서네 집에서 규수가 아마 내 집으로 오는 것 같으니까, 그 못 오게 쫓아라.” 아, 들어서질 못하게 막네. 그래 여기다 가마를 딱 내려 놓고서는 “내가 갈 때, 쫓겨 갈 때 가더라도 대감님한테 한 마디 여쭐 말이 있으니까 한 마디만 여쭙고 가겠다.” 그러거든. 가서 고하라 이거야. 그래 서판서한테 가서 하인들이 “그 규수가 갈 때 가더라도 서판서한테 한 마디 여쭙고 간다 그러니 어떻하겠습니까?” “아 그려, 그럼 들어오라고 그래라.” 그래 들어갔지. 들어가서는 그런 사실 얘길 했어. “내가 하도 이거 더러운 누명을 써서는, 이 누명을 벗을려고 한 달간을 여기다가 있었습니다. 남복을 해 가지고서는 있다가서는 칠성이 어머니라는 분도 거길 놀러 와서는 칠성이 도 그 날부터 간 곳이 없다 그러더군요. 그런데 여 시집 근처에 보면은 그 큰 고목나무가 그 뭐가 들었는지, 만날 까마구가 그걸 들여다보고 깍깍거리니까, 하인들보고 한 번 올라가 보라고 그러세요.” “그려.” 그래 하인들 보고서 “거 고목나무로 올라가 봐라. 그 뭐가 있는지.” 하인놈들이 그 고목나무에

을라가 보더니, 퍼런 보자기 피가 벌겋게 누 러붙었지 뭐 오래 됐으니까. 아 들고 들어온 단 말이야. “그래서 지가 간수를 잡을려고, 하도 더러운 누명을 써서 제가 여기 와서 나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집인가 그 여자를 잡아죽치십시오 칠성이가 그 때부터 간 곳 이 없고 이게 누구 짓이겠습니까?” 그러거든. 아 그래 보니까 풀리 보니까 하마 오래 되서는 뭐 그렇거든. 아 그래 이동집이를 불 러다 놓고서는 막 조져대네. 제가 하도 발각 이 났으니까 어쩌. 참동이가 그 때 일곱 살 인가 먹었어. 그가 냉은 아들이. 내가 너 잘 되게 하려고 이래다가 발각이 났으니까 너 도 살면 뭐하느냐고 아 토막을 열어가지고 서는 자기 아들을 때려 죽이거든. 그래 서판 서가 “자식 하나 죽이고서는 자식 하나 마저 죽이느냐? 너 이 년” 그래서 옥에다가 가뒀 지 뭐. 옥에다가 가두고서는 아 이제서는 메느리를 아 그런 메느리를 어떻해?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살림을 하는 거야. 과부가. 거 첫날밤에 애가 들어섰어. 어. 그래서 이제 있는데 서판서는 그 걸로 화가 나서는 그만 갓보따리 싸가지서는 집을 나갔어. 근데, 아 들을 낳았는데 효손이라고 이름을 졌어. 그 여자가. 그러니까 유복자자. 이게 일곱 살이 되니까 서당에다가 글방엘 보냈어. 그래 곧 절은 몰라도 이제 나아기 한 여남은 살 되니까 아 이놈의 애들이 유복자라고 이 놈을 거

시기 여기니까 애들이 “저 새끼는 저 아버지 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는 자식이 지 까짓게 공부 잘하면 뭐해?” 하면서 만날 조롱을 해. 이 놈이 한두 번도 아니고 듣기가 싫거든. 한 날은 글방을 떡 갔다 오더니 저 어머니한 테 “아 어머니.” “왜 그러니?” “어머니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요?” “아 왜.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지.” “아 그래,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그럼 니가 글방에 대니는 놈이 그런 건 왜 물나?” “아녜요. 내가 글방에만 가면 애들이 저 새끼는 저 할아버지도 없고 저 아버지도 없는 자식이 지가 공부 잘하면 뭐 하냐 만날 그래서 아주 듣기 싫으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됐는지 어머니 좀 아리켜 주시오.” “공부하는 아이가 그런 걸 알면 공부가 안되니까. 이제 그러니까나마나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저 공부만 열심히 잘 해 가지고서 이 다음에 과거 봐서 장원급제 해 가지고서 너 아버지 원수도 갚고 그렇게 할아버지도 찾고 그렇게 해라.” 저거 아버지 원수 갚으란 말을 듣고 “아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됐길래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글쎄 아무 소리 말고 공부 나 해라.” “아, 나는 어머니가 자세히 아리켜 줘야 글방에 가지 안 가요” 아 그래 자꾸 그래 하더니, 그래 그 날 또 글방에 갔어. 갔

다 오더니 그 이튿날 또 와서 또 졸라대네.
 “나는 거, 어머니가 안 가리켜 주면 글방에
 도 안 갈래요.” 아 이 놈이, 저 어머니가 안
 가리켜 주니까 부엌에 가 식칼을 가지고 노
 네. 저 어머니 앞에 대고서는 “어머니, 아
 리켜 줘야지, 만약에 어머니 안 아리켜 주면
 내가 이 칼을 들고 죽을래요.” 아 그러니 어
 떻해? 아, 이 놈이 그 때 나이가 열네 살이
 예. 야, 그러니 이거 안 가리켜 줄 수도 없
 고 “그래, 그 사실 얘기를 할래. 너 외가는
 시골 김판서 집이야. 너 외가집에는 나 하나
 야. 무남독녀 딸 하나 나 하난데, 너 아버지
 가 첫날밤에 외가지고 잔치를 해 가지고 신
 방방에 와서 자는데, 너 서할머니 이동집이
 라는 여자가, 칠성이 한 놈만 그저 다 하인
 들 다 테리고 가라고 해 놓고 칠성이 한 놈
 만 집 보라 그래놓고는 칠성이란 놈을 보내
 가지고는 그 놈이 너이 아버지 목을 잘라서
 이래서 너이 아버지 제사날이 되고 칠성이
 란 놈도 간 곳이 없고 이렇게 된 거다. 칠성
 이를 나중에 찾아야 되니까 니가 공부만 잘
 하면 너 아버지 원수를 갚을 거 아니냐?”
 “그래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
 지는 그 지경이 되고 화가 나서는 그 길로
 나가서는 오늘날까지 소식이 없다.” “그래
 할아버지 모습을 알아요? 어머니, 할아버지
 모습이 어때요?” “니가 할아버지 모습을 알
 면 그래 할아버지를 찾겠느냐?” “글쎄 얘기

를 해 주세요.” “너 할아버지는 키는 중키나
 되고 수염은 이렇게 차서 내려오고 고함소
 리가 어글어글하고, 요 귀 밑에 벨건 사마구
 가 이렇게 있느니라.” “예, 나는 내일 글방에
 안 가고 할아버지를 찾아 갈래요.” “야 이
 놈아, 열네 살 먹은 놈이 할아버지를 어디
 가서, 할아버지 생전 모습도 못본 놈이 할아
 버지를 어떻게 찾는단 말이냐? 아무 소리
 말고 공부나 잘해라. 공부만 하면 할아버지
 도 찾을 수가 있고 너이 아버지 원수도 갚을
 수 있으니까 공부나 잘 해라.” “아니 할아버
 지를 찾으러 갈 테니까 제 행장을 차려 주세
 요” 아 이 놈이 아주 막무가내야. 그래서 아
 주 행장을 차려서 전복을 해서 도포를 해서
 쓰고서는 저이 아버지를 찾으러 나서는 거
 야. 저 어머이가 그걸 내보내고 눈물을 흘리
 네. 거 열 살 먹은 놈이니 기가 막히지 그거.
 “그나마나 아무쪼록 잘 맹겨서 할아버질 찾
 아서 모시고 오너라.” “예, 어머니 아무 걱정
 마세요.” 이러고 나서는 거야. 아 이 놈이 사
 방을, 그 때는 조선이 팔도래요, 조선 팔도
 예. 사방을 돌아다녀도 되나. 그 때 아무 데
 절이 있다고 해서 ‘애이고 절구경이나 하고
 간다’고 절을 찾아 올라 가는 길이여. 가는데
 도량물이 폭포수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
 너머로 바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길 소나무
 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경치가 좋단 말이야.
 이 녀석이 보따리를 여기다, 효손이가 보따

리를 내려 놓고 쉬어 가느라 아래 가 앉아 있으니까, 중이, 서산대사가, 삿갓에다가 바탕 하나 짊어지고 죽장을 짚고 이렇게 오더니, 아이고 허리야 허리를 툭툭 치면서 “어쩐 도련님이 이렇게 험한 산골에 오셨다가 이렇게 쉬고 있습니까?” “예.” 벌떡 효손이 가 일어섰어. “예 저는 살기는 서울 삽니다.” “서울 살면은 어찌 여기는 이렇게?” “저는 할아버지를 찾으러 나선 사람이래요.” “할아버지를 찾다니? 할아버지는 존함이 어떻게 되시는데?” “예, 저 할아버지는 저 판서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서판서라고 합니다.” “서판서라? 서판서.” 몇 번 이러거든. “서판서라. 서판서라는 분이 노인네가 우리 절에 와 한 분이 계시는대. 그 양반은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고 그렇다 그러던대.” 아 이 효손이가 그 소리를 듣고서 “그 노인네를 한번 찾아뵐 수 있어요?” “아 가면 볼 수 있지. 그 노인네가 만날 소일을 떨 하나 하면 앉아서 신 삼는 게 일이여. 이 신 그래서 오늘도 신을 하나 삼아서 나보고 팔아 달래고 내가 팔아서 오는 길이라구.” 그래 죽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중을 따라서 갔어, 효손이가. 가서 얼마쯤 가니까 거기 해가 저물어 어두워, 거기가. 그러니까 “도련님, 암자에 여기서 주무시고서 내일 여기서 조반을 짐승고 내일 내가 여기로 올 테니까 가십시오. 그 노인네 보러 가십시오.” 아 그러거든.

그래 이제 암자에서 효손이가 자고서는 인제 아침을 먹어. 그래 그 중이 왔거든. “그래 같이 가 봅시다.” 그래 따라갔어. 가 보니까 그 때도 참 신을 삼어, 신을 노인네가. 효손이가 저 어머니한테서 모습을 적 아리켜 달라고 했거든. 키는 중기는 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뺨건 점이 있어, 여기. 저 어미이가 다 아리켜 줬거든. 이래 하마 천륜에 썩었는지, 아 신을 삼는데, 덮쳤어 효손이가. 아이고 할아버지 하면서 덮쳐서 아 이래고서 저 할아버지 얼굴에다 막 얼굴을 비벼대고 그러니까 “아이고 애애애애, 니가 잘못 봤다. 나는 아들도 없고 아들도 없는 사람이 손자가 어디 있나? 아 아이고 니가 잘못 봤다. 너 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얘기나 해 봐라.” 아 이 자식이 할아버지한테 비비대고 한참 그러더니 이제 사실 얘길 하는 거야. “시끌 아무 데서 첫날 아버지가 장개 들면서 첫날 저녁에 칠성이란 놈을 서울 할머니가 보내 가지고서 아버지 목을 비서 그 길로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렇게 됐고, 지가 첫날 밤에 들어어서 유복자식이 됐다. 하마 열네 살이 됐다.” 아 이래고서 저 할아버지를 찾아서 사실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아주 아들이 아주 없는 줄 알았더니 손자가 이렇게 있구나.” 아 그제서야 손자를 볼들고서 저 할아버지도 같이 울고 이러는 거야. 이제 손자를 보고 “그래 니 애미는 너를 어

린 걸 내보내고 그 잠을 자겠느냐? 빨리 가자. 가서 칠성이란 놈을 찾아가지고서는 칠성이를 찾아야 내용을 알 테니까, 가자.” 아인제 중들하고 송별연을 먹는 거야. 중들이 와서. 인제 그런 사실 애길 하니까 “아이 가셔야죠” “가고말고, 손자가 있는데 안 가겠냐고” 그래 인제 중들이 노잣돈을 주고서 십리를 배향을 했어. 그 때 노인이지 뭐. 칠십 먹은 노인이 지팡이를 하나 짚고 효손이를 앞세우고서, 하루 십리도 가 자고 이십리도 가 자고 아래고 그래 한 여관에서 그냥 자는데 저 할아버지가 뒤가 매렵다 그래 “애, 내가 어찌 이 밤에 뒤가 매렵네 그래.” “아이 할아버지 뒤가 매려우세요? 그럼 가만 있으세요. 내가 주인양반보고 등불을 좀 해 달라 해 가지고서는 여기서 화장실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요.” 그래 주인을 불러 가지고서는 여기 우리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뒤가 매렵다니까 그래 등불을 좀 해 달라고 그래. 아 그래 등불을 해 가지고서는 “우리 화장실을 갈려고 그러면 여기 아래 여관이 또 한 집 있는데, 그 여관을 지내서 가면 그게 화장실이라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십시오.” 하고 그 여관을 지내서 가는데, 그 때에 칠성이가 그러니까 그전에 오백이를 미국을 데려 갔어, 미국을 데려가서 유학을 시켰어. 그래서 그 돈은 다 없어졌지. 유학을 시켜 가지고 막 오는 길이야 이제. 하도 오래

됐으니까 차차 차차 집에 들어가 봅시다.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쪽 여관에서 자고 있었단 말이야. 이 집은 이 쪽 여관이고 그런데 그 때 하필 저이 아버지가 뒤가 매렵다 그래 가지고서는 여관을 찾아갔는데, 칠성이 목소리가 소근소근 난단 말이야. 그런데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지. 저 할아버지가 “애애애애가만 있어봐라. 여기 아는 놈 목소리가 있어.” 이렇게 들창문이 있어. 그래 이렇게 발돋움을 해서 아래 저 할아버지를 올려 놓으니까 짚은 놈 하나가 들어누었는데, 맥에 아들이지, 아들은 죽었는 줄 알았거든. 살아서 들어 누었는 줄 알아? 짚은 놈 하나가 들어 누었는데, 오백이가 다리를 꽉 펴서 “아이, 서방님 다리 아프시죠?” 자꾸 주물르고 그래. 칠성이란 놈은 분명한데, 이제 짚은 놈이 있거든. “칠성이란 놈이 여기 있다.” “칠성이가 여기 있어요? 아 그럼 할아버지 뒤로 가서 관가로 가서, 그 맨 관가지, 헌병을 데려 가지고서 이 놈을 잡아 넣어야죠. 얼른 가십시오.” “아, 애, 뚝도 안 매렵다.” 그래 되려 여관으로 갔어. 여관으로 가서 주인장을 불러 가지고서는 얘기를 했어. 사실이 이러저러 하니까 여기 여관에 어떤 놈이 있으니까, 처음 내가 저거를 잡아넣어야 되니까 같이 갈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 그래 주인을 데리고 거기 갔어. 그래 관가에 가서 잡아서 관가로 불잡아 보냈어.

그 때부터는 말이 거뜬거뜬 한 거야, 서판서
도 짊은 놈은 자기 아들이 줄, 아들은 죽었
는 줄 알지 데리고 다녔는 줄 알아? 아 그래
서 인제 며칠 만에 집에 돌아오는데, 효손이
가, 저 어머니는 그 어린 것을 내보내고서
만날 해만 슬펐 겠다 하면 들창문에 나가 앉
아서 “아이구, 이것이 어찌 죽지나 않았나?
할아버지 찾아가지고 오겠나?” 만날 아래
세월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데, 아 자기가
보니까 그 날로 바느질을 하면서 아래 생각
을 하고 앉았는데, 아 저기 동구밖에서
“어머니, 어머니, 할아버지가 오신다.” 고 소
리가 나. 아 벌떡 일어나서 내다 보니까 저기
전복을 받쳐 입고서 저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 아이구, 이 어떻게 급한지, 이 여자가 신
도 안 신고 버선발로 그냥 쫓아 간 거야. 아
쫓아 가서 자기 시아버지지를 불들고 울고 시
아버지지는 며느리를 불들고 울고 하다가 “야
이제 들어가자, 이제 원수놈을 잡았다.” “아
이 원수놈을 잡다니요?” “아무 데서 잡아서
관가로 보냈으니까, 내일 이동집이 여기 옥
사장에 가 보자.” 아이 그래서 인제 그 이튿
날 인제 옥사장에 가보니까, 자기 아들이 살
았어. 그래서 인제 [조사자: 아들이 어떻게 살아
났어요?] 대신대신, 송장을 대신해서, 살았어.

‘베를노래’

[구연재 이복구(여, 79세)]

[구연장소] 소태면 허연씨택

[구연일시] 1996. 4. 25(목).

[조사자] 황재문, 류준경, 서정민, 홍석준
(소태면은 전체인구가 2,168명에 지나지 않는 작
은 면이며, 현재도 상주인구가 계속 줄어들어간다고
면사무소에서 밝혔다. 청룡사가 면사무소 뒤쪽에 있
고, 허씨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 가문의 유적
이 몇 가지 남아 있었다. 면 북쪽의 덕온리 조기암
은 1979년 「구비문화대계」에서 여러 편의 무가와 민
요를 채록한 곳이라서 원래 찾아볼 예정이었으나,
당시 제보자들은 현재 강원도로 이주하거나 사망하
였으며, 현재는 인구가 40명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 되어서 더 조사할 수
없었다. 면사무소 서쪽 별묘리의 허씨 종가를 찾아
가서 민요와 설화를 채록할 수 있었다. 제보자 이복
구씨는 허연씨의 부인으로 19세에 소태면으로 시집
왔으며 그 이전에는 이웃의 엄정면 목계에 살았다
고 한다. 구연현장에는 허연씨와 이복구씨 이외에도
친척인 허정동씨가 같이 있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
는 대목에서 도와 주기도 하였다.)

우글주글 장안분네 어디서 병이 났나/절
리절리 내려가서 개울물서 병이 났네/참기름
은 들리기요 들기름은 들리기요/북난간에 배
틀놓고 배틀다리 내 다리/님도 버리고 간 서
리 새벽서리 찬바람에//

「시집살이노래 1」(며느리의 노래)
형님형님 시촌형님 시집살이 어떻답까/고
추당추 맵다하니 후추보다 더 맵더라/하기지
없어도 집을 쌓고 지기지 없어도 담을 쌓고/
울도 담도 넘어가네//

「시집살이노래 1」(며느리한테 구박받는 시어머니의 노래)

간데마다 허깨눈이요 말썽나도 통발이요/
이팔청춘 어디 가고 호호백발 남아있나//

라. 신척면, 동랑면 일대

「모심기노래」

[구 연 재 윤현준 (86, 남)

[구연장소] 신척면 송강 마을

【구연일시】 4. 24

[조 사 재 임주탁, 류준필, 심우장, 김은아, 권근영
심어 주오 심어를 주오/삼백줄짜리루 날
심어 주오/일월 배미 심으구서/장구배미루
넘어를 가세//

「논매기노래」

이리 파구 저리 파구/얼른 파구 쉬어 파
세/쌓아 주오 쌓아 주오/얼른 파구 쉬어 파
세//

「발매기노래」

매어 주오 매어 주오/이내 밭을 매어 주
오/이내 밭을 얼른 떼고/이내 밭을 떼어 보
세//

「영감타령」

[구 연 재 진교월 (70, 여)

[구연장소] 동랑면 조돈 마을

【구연일시】 4. 25

[조 시 재 임주탁, 류준필, 심우장, 김은아, 권근영
영감아 홍감아 일어 나게/보리 방아 품팔
아 제개떡 했네/제개떡 솔에는 더운 짐 나고
/영감의 죄에는 찬 짐이 난다//

(구연후에 이 노래와 관련된 배경 이야기를 들
려주셨다. 영감님이 하도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보
리 개떡이라도 해서 먹으려고 할머니가 보리 방아
풀을 팔아서 제개떡을 했는데 그걸 해 가지고 오니
까 영감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진주난봉가」

울도 담도 없는 집/시집 삼년 살다 보
니/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애야 아가 며들 아
가/진주 낭군 오신단다/진주 강에 빨래 가라/
진주 강에 빨래 가라/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진주 강에 빨래 가니/물도 좋구 둘두 좋아/
토드락 텅텅 빨다 보니/자죽 소리 요란해서/
옆 눈으로 돌아 보니/하늘 같은 것을 쓰고/
구름 같은 말을 타고/진주 낭군 달려 오네/
검은 빨래 검게 빨고/흰 빨래는 회개 빨어/
집이라고 당도하니/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애
야 아가 며들 아가/진주 낭군 오셨으니/건너
방에 건너 가라/시어머니 그 말씀에/건너 방
에 건너 가니/오색 가지 수를 놓고/기생 첨
을 옆에 놓고/못 보겄소 못 보겄소/내 눈으
로는 못 보겄네/내 방으로 건너 와서/석자
세치명주 수건/목을 매여 죽으리다/진주 낭
군 그 말씀 듣고/버선 밭로 뛰어 나와/여보

시오 조강지처/기생첩은 석달이고/조강지처
백년인데/죽었단 말이 웬말이요/여보시오 어
리석어/죽었단 말이 웬말인가//

「정선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고개고개
루 날 넘겨 주게/아리랑 고개다 주막집을 짓
고/넘어올 적 넘어갈 적 정거정이루구나/정
선읍내야 일백오십호 잠이나 몽땅 들어라/공
지 갈보 옆에다 계구서 성마람을 넘잖아/아
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정선 읍
내야 은행낭구는 꾀꼬리 단풍만 들어라/정든
님과 들이 살짝 은행 주수러 갈꺼다/정선 읍
내야 물레방아는 물거품만 안고서/비비뱅글
비비뱅글 빙글뱅글 잘도나 돌아가는데/우리
택네처명팅구리는 날 안고 돌 주울 웨 물리//

「자장가」

불아 불아 불아 불아/은을 준들 너를 사
래/금을 준들 너를 사래/자장 자장 우리 애
기잘도 잔다/오이 밭에 오이 불어/가지 밭에
가지 불어/무력 무력 잘 자려라/은을 준들
너를 사래/금을 준들 너를 사래/어화 등등에
내 사랑아/어화 등등에 내 사랑아/우리 얘기
잘 자려라//

「돈많은 뱃사공」

[구연재 전상보 (70, 남)]

[구연장소] 동량면 관암 마을

[구연일시] 4. 25.

[조사자] 임주탁, 류준필, 심우장, 김은아, 권근영
(조사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더 해 주라고 하
자, '거짓말 하나 더 해지' 하시면서 시작했다.)

옛날에 이 사람은 뱃사공질을 했대요, 뱃
사공. 근데 배를 하나 지가 가지고서, (잠시
휴지) 그러니까, 중적삼 옷같은 모양이야. 여
름이며는 중적삼 한 벌 가지고 나, 여름이면
그거 뺏어서 그냥 겨울에도 언제 그것 비슷
하게 지내는데. (잠시 휴지 : Tape를 교체하는 관
계로 몇 행이 빠져있음, 이 뱃사공이 돈을 많이 벌
게 되었다는 내용임) 그래 이놈이 도울 나귀에
다 해 치구선, 서울을 올라갔대요, 서울을.
서울을 올라가는데, 가서 언제 지낼 곳을 정
한겨. 정했으니 그 너모 인제 하필 여름에
갔는데, 옆에 사람은 냄새 나서 옆에 갈 수
가 없는 정도여. 인제 그런 입성을 입었다
이거지. 그래 언제 (휴지) 그 주인이, 그 주인
한테 물용겨. 돈은 내가 다 널테니까 서울
좀 시내 좀 구경 좀 씨길 수 없느냐. 아이구
아저씨 돈 대는데 왜 그걸 안 씨겨주느냐구.
그래 인제 핫바지에다가 그 고무신을 어떻
게 그냥 사서 신었는데, 돌아댕기니까 그 고
무신 신고 핫바지 입은 놈은 저밖에 없어.
그래 인제 눈 한군데 아래 지나가다 보니까
어짠 놈은 뭐 가죽을 맨들어 가지고 밭에 신
어 보니, 거 구두지. 또 한군데 가다 보면 뭐
입성도 하고 그러능겨. 그래서 주인이 얘기

를 하능겨, 주인이. 돈이 그렇게 많은 분인데, 좀 그래도, 입성하고 신이나 좀 제대로 해라구. 그래 위임을 행겨. 돈이고 뭐고 들던지 간에 최고 좋은 걸로다가. 서울 시내에서 입고 대니는지 신을 신고 전부 아주 누구든지, 이, 부러워 할 정도로다가 그런 걸로 사달리구. 잊느제 이걸 전부 다 그날 준비행 겨. 준비를 했는데, 해가지구 인제, 준비 했는데, 월 혀. 그래 어디가 누구 놀이터가 제일 좋으냐구니까, 그 서울 그 공원 제일 있는데, 거가 좋다구. 그래 인제 거길 떡 갖는데, 음식은 좀 해가지구 간겨. 주인한테 써겨가지구 가니까 그냥 있는 사람이 없어. 전부 책가지구서 공부해는 대학생 천지라 이기여. 그러니 일자무식이니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이거 식충이마냥 먹는 거밖에 몰라. 그래서 그 주인한테 뭔 책인지 이런지 몰라. 지금 영언지 뭔지 그전에 잘 모르잖아. 그래 인제 영어책 제일 그게 어렵다구 말이여. 비싸구, 비싸나마나 최고 수를 많고 그 영어책 한권 사달리구. 그래 가만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가지구 와도 생각을 해 보니까 일자무식이 큰 일 아니여. 꺼먼거 글씨요, 허연건 종인테. 그래 인제, 그걸 달구 매일 가는거지, 그 공원을 매일 가서 인제 그 이틀 날은 아주 일찍 간겨. 주인하구 푸짐하게 해가지구서는 음식을 많이 장만해 가지구는 가서 아주 제일 큰 나무 밑에 앉아서 그냥

먹으면서, 그래 인제 책을 펴지, 이렇게. 그려니까 실수없게 한장 넘어가. 참, 아 그래 웬 그 참, 그 얼굴도 저 잘생기고 여잔데. 그, 그걸 지나가다 보니까 웬 남자가 자기두 그, 읽기나 험드는 책인데, 보니까, 그런 책 인데. 아 어떻게 슬쩍 한 장 넘겨. 야, 인제 그때 그 여자가 언제 시집을 갈라고 하는데, 그 남자를 고르는 판인데. 그런 남자가 있다 이기야. 이 남자가 인젠느 내 신랑감이구나. 인제 보니까 뒤에 뒤에가 인제 등을 연해를 하드래. 그 여자가 한 자 적은 모양이지. 며칠 날 그 아무대 어디로다 만나자구. 그래 인제 이 남자는 아무 것도 모르잖아. 천상 주인한테 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래 인제 그 아무 날짜 당했는데. 그래 인제 돈을 잔뜩 넣구서는 가서 만냉겨. 인제, 그러다, 인제 냉기다보니까, 조금씩 뭐 알게 되잖아. 그래 뭐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구 말이지. 그래 전부다 거짓말 행거지, 전부. 그 그래서 인제 그 여자가 또 편지를 하나 써 주구 집에가 꼭 읽어보시오, 집에 가서. 여기서 여자 이 양반 있는데 보지 말구, 그러니까 내가 당신하구 이 의사가 맞고 신랑감이 적당해니, 허락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집에 가서 읽어보면 알거리구. 그래 인제 그렇게 썼더라 이거지. 집에 읽어 보니까. 그래 인제 그 럴 인제 꿈꾸니까, 꿈꾸니 속으로 한 번 약 어져가 인제, 처음에 거절했대는거. 당신같

이 훌륭한 여자가 나같은 사람 데리고 살겄냐구. 그래 인제 자꾸 매달리능겨, 여자가. 인제 그래가구서는 결국은 남자가 허락을 했어. 해구선 인제 하여간 그 남자가 가진 돈은 십원도 못쓰게 했능겨. 여자가 전부다 이 저, 집두 사구 결혼식 비용까지 다 물어서 인제 결혼식을 끝냈는데. 그래 인제 살다 보니께, 재미가 없잖어. 그냥 먹구 돈만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제 아들도 놓고 인제 딸도 놓고 했는데. 괜히 신문도 볼 줄 모르는 놈이 신문을 보능겨. 그냥 아래가지구서, 아 이 보라구. 한번은 보니까 이 부산 뭐 그 고무신 공장인가 판다구 신문에 났다 이거여. 당신 이거 봤어요 또 이러능겨 인저 여자가. 남자는 계속 그냥 보니까 훑어 보는 거지, 이 남자는. 거 뭐가 났느냐구. 아 여보라구. 여, 부산 그 고무신 공장 큰 거 이거 판다구 해는데. 아이구 그런 걸 사서 사업해 몬 좋겠다구, 말이여. 이러니까, 글쎄, 내가 그걸 살 힘이 될른지 모르겠다구 말이지. 인제 여자를 보능겨. 부산으루다가. 인제, 신랑 돈하구 맞추어 보니까. 비슷해요. 엇비슷해구. 자기가 사는 집 산 거는 안 팔아두 된다 이거지, 액수가. 남자가, 아 그 내가 그 돈 될른지 모르는데, 부족되는 건 당신이 좀 보태시오. 그러니까 얼싸 좋다해구, 인제 가서 계약을 치루능겨. 계약을 치렀는데. 사장이 바뀐다구 하니까 달리지않어, 공원들이. 그

래 인제, 지금으로 말하면, 그 전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장 인제, 웅 인시를 하는거 아니여. 아 이 뭐 떠들 줄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인제. 일주일 연습을 했대능겨. 내가 사랑은 사장질에 있지만은 그 사장의 일은 전부 이 안사람이 해니까, 좀 잘 봐달라구. 그것만 딱 하능겨.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아이구 사장이 저렇게 말 잘할 적에야. 뭐 그 안양반은 말두 못할 거라구 말이여. 인제 그래서 한 이력저력 한 7년 지내니까 인제 애들이 한들 생겼잖아. 그래 9년 만에 이야기 했다는거, 9년만에, 사실 이야기를. 그래 당신 사실 내가 일자무식이다.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웅, 그 싸가지구 대는겨. 그때 그 서울 올 적에 입은 중적삼 냄새 나는 걸 자꾸 싸가지구 땡겨. 일년에 이거 한, 요거 한, 여름에는 이거 한 벌 가지구 뱃사공 하면서 뺨아서 입구 뺨아서 입구해서, 웅 그러니까 이렇게 돈 버는데. 당신도 팔자 아니냐 이거여. 나같은 일자무식하고 지금 살 아가지구, 이거 지금, 뭐 신문을 볼 중 아닌데, 내가. 웅, 허연건 종이구……. 그래 여자가 이야기를 허드래는 겨. 이게 천상 내 팔자구. 아 여보 뭐 그래두. 부산 고무신 공장 사장 아래문 아 대한민국에서 알아 주는 사람인데. 뭐 글이 필요 있느냐구. 인제 그렇기구 무슨 뭐 이론도 못해잖아. 그래 또 거짓말만 하는 거지.

「거짓말하기」

[구연재 진교월 (70), 여]

[구연장식 동량면 조돈 마을]

[구연일시] 4. 25.

[조사자] 임주탁, 류준필, 심우장, 김은아, 권근영
 옛날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음, 그 아버지가 딸을, 딸을 뒤, 딸을 뒀는데, 우리 딸은 누구든지 거짓말 잘 하는 사람이라면 딸을 주겠다. 그랬어.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많이 모여들을꺼 아니여, 와서 또, 한 일시켜 먹을라고 그랜 거지, 그러니까. 한 1년 되도 아, 그 거짓말을 못해그던, 그래 일년 농사다 짓구는 거짓말 못해니까 나가라. 그래 쫓겨 난 거여, 또 쫓겨나고 또 한 늠이 또 와 가지구서는 이제 나는 거짓말 자신 있다구. 그래서 들어와가구는 아 또 뭐 한 1년 거진다 가도 거짓말 한마디 못해거든. 너는 거짓말을 못행께, 또 틀렸다. 또 내보내버리구. 세 사람이 갈아들었는데, 세 사람 중에, 에이 나는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해구서네 저 딸을 데려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 이눔이 칠월달, 정월달에 들어온 늠이 칠월달까짓도 거짓말 한 마디를 못했던 말이요 그래서, 넌도 이눔아 틀렸다 해구서 이제, 장인이 이제 그래구 생각을 해구 있는데 하루는 저기 오늘을 점심을 좀 싸가지구 가지고. 그래 점심 싸가지구 가자. 채소 밭을 파러 가는데, 싸가지구 가자. 그럼 오늘을 꼭 점심때만 되거든, 꼭 먹어야 되유. 언제는 뭐

늦게 먹었나. 일찍 먹었지. 그러니까 오늘을 늦으면 그 밥이 똥이 되가지구 못 먹여유. 그러니까. 꼭 12시 되거덩. 점심을 먹자구. 그러니까. 아이 그래 그럼 그래자. 이래구 데리고 가서 또 이제 채소밭을 파는데. 하나님 절이 이제 다 되 가니까, 장인 어른, 장인 어른, 얼른 그만 점심 잡숴요. 아이 12시도 안 됐는데 뭔 점심을 먹니. 아이 똥 되유, 자꾸 냄새가 나는데유. 그래서 그래 이눔이 인자, 그전에 가서 그 밥을 혼자 다 먹구서는 밥그릇에다 똥을 하나 쑥 해구 누어가지구 서는 갖다 덮어 놓구서는, 아이 조금 더 해다 먹자. 더 일을 더 해다 먹자. 그러니까, 아니, 아이 똥 되면 어떻게 해유. 똥 되면 어떻게 해유. 아이 밥이 왜 똥이 되? 얼른 해요, 일 해기 싫으니까 똥된다 그러지, 그래.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그럼 먹자. 이러구 와서 홀랑 열어 보니까, 똥이 됐거든. 진짜 똥이 됐거든. 그러니까, 아이 그 우째 참 오늘은 그래 밥이 똥이 됐니. 그러니까 아이 그래도 지가 먼저 알아유. 그러니까 오늘 똥 된다는 걸 알았어유. 그랬더니 얼른 가, 야 배고파 뭐 해겠니. 어여가 밥해 달래서 가져오너라. 그래서 보냈어, 집으로 보냈다구. 그 래 집으로 보내가지구, 이제 혈떡 혈떡 쫓아오면서 아이 저 장모님, 저거 장인어른을 호랭이가 물어 갔어유. 그러니까, 호랭이가 물어 갔다구. 그러니까, 아이 호랭이가 왜 물

어 갔어, 아이구, 어떻해유, 어떻해유, 어떻해유. 아 동네 사람 다 좀 모이라구 그레이지 얼른 가서 호랭이를 가 잡아야지. 어떻하나구. 동네 사람들, 우리 영감 호랭이가 물어 갔으니 얼른 좀 오라구 얼른 좀 오라구. 이러니깐, 아 동네 사람이 다 모였거든. 그래니까, 이 놈이 먼저 앞에 쫓아가 가지구서는, 장인 어른, 장인 어른. 못했어유, 점심도 아 집에 가니깐, 불이 나가지구, 집에 불이 나가지구 다 탔어유. 그러니 뭐 어떻게 해유. 아 유 그걸 어떻해유. 이러니까, 아 그 두년들이 들어 앉아서 뭘 해 쳐 먹느라구 집에 불이 났다는구. 막 쫓아 내려 오는 거여, 쫓아 내려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몽댕이를 하나씩 들구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이 영감 할멈 마주쳤네. 마주치니까, 아이구 영감 호랭이가 물어갔다더니 아이구 어떻게 됐어유, 어떻게 됐어유. 그러니까 아 이년이 집에다 불을 내 놓구서 어 할말이 없으니까, 웬 호랭이가 물어 갔다구 헤느냐구. (웃음) 그래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 올라가구 내려가구 이리다가 이제 미줄 다리가 됐는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우가 손바닥을 턱탁 치면서 아 여보시요, 예, 웅, 내가 아래도 거짓말 못 했느냐구, 어. 동네 사람이 다 중인이라구 말이여. 나 아래도 거짓말 못했느냐구. 아

그래니까, 장인이 하는 말이 아 그놈 거짓말 한 번 오지게 했다. (웃음) 그래구서는 그만 사우를 삼드래요. 그래 그 놈은 거짓말 해 가지구 장가를 갔드래요.

「호랭이 꼬리」

옛날에는 인제 토끼가, 토끼가 인제 호랭이가 토끼만 보면 잡아 먹는 거잖아요. 그래는데 이 토끼가 피가 많아 가지고, 그 호랭이 한테 안 잡아 매헐라구, 별 수단을 다 쓰는거지. 그래 인제 옛날에 인제 그 호랭이가 잡아 잡아 자꾸 잊어버려 안되네, 처음에 인제, 토끼가 하나 뛰들어 땅기니까 그 호랭이가 잡아 먹을라구. 깅충깡충 뛰어서 잡아 먹을라구, 인제 뛰들어 땅기는 놈을 그러니까. 호랑이저씨, 호랑이저씨. 이유, 요까짓 나같은 건 오련 거 먹어야 뭔 뛰어 그 호랑이저씨 저렇게 큰 데 오련 걸 먹어야 뭐 배나 불르겠어요. 내 배 불른 걸 하나 해 주게유, 그랬다구. 그래 그럼 해 봐라. 그러니까, 저기 가서 이 얼음 구녕을 오래 파구서네. 거깃다고 인제 꼬랭이를 당구고 있으면, 당구고 있으면, 아 거기 고기가 우물우물 하게 매달려가지구 이렇게 꼬랭이 한 번 쑥 뺄아 먹고 또 당구고 또 당구고 하면 몇 번이래도 다시 하면 배가 불르니까, 거기 당구고 앉았으리고, 그래거동. 나는 저 우에 땅기면서 몰아드리께 거 꼭 당구고 앉았으라고 그랬단 말이

야. 아이 그 놈이 울로 절로 돌아댕기며 우우하고 돌아댕기니까, 이제 이거는 꼬랭이를 뚝 담그고 있다. 호랑아저씨 좀 한 번 들어보세요 이게 둑직해진다. 아 조금만 더 담궈요, 그럼. 엄청 많이 달려유. 아주, 된밥같이 달려유. 그랬단 말이유, 그러니까, 아 이놈이 점점 얼어들어오거든. 꼬리를 물에다, 이 얼음을 파구서는 이제 이 꼬리에다 이제 아래 집어 넣어 놓으니까, 자꾸 얼으니까 그게 굳으면 안들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토끼는 아유 호랑아저씨 거 고기가 매달리느라 그래요, 고기. 그러니까 조금 더 당구고 앉았어요. 조금 더 당구고 앉았어요. 아 이 미련한 놈이 자꾸 많이만 당구며는 이제 당구고 있으면 이제 많이 건져 먹을라고 자꾸 눈을 감고 당구고 앉았다.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자꾸 돌아 댕기다, 좀 들어봐유, 들어봐유, 그러니까. 아 야 안들린다, 얘, 안들린다. 그러니까 아이 너무 많이 달려서 그래유. 그러더니 쫓아오더니, 그저 호랭이 뺨을 요리 저리 치면서, 아이 이 쑥매같은 놈아, 거 꾀구라 불어서 그려. 니가 날 잡아 먹어. 난 너한테 안 잡아 맥힌다. 그리고 뺨을 치고 그냥 내 뺨거여. 그러니까 이제 토끼는 살았지, 토끼는 살았는데 아 이제 그전에는 강에 와서 뺨래 뺨았거든요, 옛날에는. 저기 뺨래를 삶아 가지고 한 자배기 우선은 여자가 이제 그 마을 여자가 뺨래 뺨러 오는데. 아 그 흐

랭이가 그렇게 당구고 앉아서 이거 움도가도 못하는 거지. 뭐 풍지가 얼어 붙었으니까. 그래서, 아 아래구 앉았다니까. 여자가 짐이 무럭무럭 나는 뺨래 자배기를 이고 아래구 오거든. ‘엉’해구 소리를 질르니까, 그 뺨래 자배기가 그만 훼 집어 내 들어가지구는, 무서울거 아니유. 훼 집어 내 버려서 이제 그 꼬랭이에 가서 뜨거운 물이 꼬랭이에 가서 쏟아졌단 말이유. 뺨래도 쏟아지구 이제 꼬랭이가 뜨신 물도 쏟아지구 그러니까. 아 이놈이 점점 녹아가지구 그 놈의 꼬랭이가 멀어졌거든. 멀어지니깐, 아이 요놈의 토끼를 내가 내가 어디가서든지 잡아서는 이제 요거를 웬수를 갚아야지, 해구 돌아댕기니까. 요놈의 토끼가, 남의 굴뚝으로나 쪽 빠져 나가구, 이리 한번 빠져가구, 저리가 한번 빠져가구 하니까, 새까만 토끼가 됐단 말이유. 그게 하얀 토끼가 이제 새까만 토끼가 됐을 거 아녜요. 새까만 토끼가 되니까, 아 이제 이놈의 호랭이가 찾아 댕기면서, 껴먼 토끼한테, 너 흰토끼 봤나? 그러니까 흰토끼 절로 갔어유. 자기 저면서, 흰 토끼 절로 갔어유. 아 그놈을, 아저씨 왜 흰토끼를 찾으세유. 아 그놈을 내가 잡아 먹어야 되겠다. 내가 웬수를 갚아야 되겠다. 아 그럼 내가 찾아 주지유. 그래 이제 자꾸 따라 댕기지. 찾는 척 해구. 아이 호랑아저씨, 거 뭐 찾으면 뺨해유. 뭐 고기가 잡수고 싶어 그래유. 그래 그랬다구. 아 저기

그럼, 실컷 잡수게 내가 해 드리지유. 이놈의 차돌을 잤다가, 잔뜩구 싸 놓구서는 불을 거기다가, 잔뜩 피워 놓아. 이놈의 토키가 껴먼 토키가 해 놓았단 말이여. 그러니까, 인제 그게, 하나하나 이놈이 시 놓는게요 내가 저가 도마하고 칼하구 얹어가지고 울데니까, 호랑 아저씨 이거 꼭 지키고 앉았어유. 이걸 저 도마위에다 놓구 칼로 썰어야 먹지 그냥은 못 먹어유. 그랬거덩. 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건가봐 요놈이 이 저기 도마 얹으러 간 새에 아 그만 그 뜨거운 걸 하나 널름 집어 먹었데. 아 그러니까 이 호랭이가 그만 속에 가서 그만 그게 단거를 얼른 집어 먹으니까, 여기가 타서 죽더래요. 호랭이를 한마리 잡더래요, 토키가. 그래가지구, 그 호랭이 한테, 이 토키한테 호랭이가 맨날 당한데요 토키가 꾀가 그렇게 많아 가지구. 그 돌멩이 구워 가지구선 인제 그게 고기라구 구워 가지구선. 이걸 하나하나 시 놨는데 이거 꼭 열두개이니까 가만 놓아두라고 그랬거든. 그 래 호랭이가 하나하나 세어 보니까 열 세개란 말이여. 그러니까, 애 이놈 몰래 하나 먹어야겠다고 널름 집어 먹은 거유. 일부러 그 래 놓았지, 그 놈이 욕심이 많으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 먹을거다 해구는 하나 더 안시 놓구서는 그렇게 그래구 가니깐 널름 지어 먹은 거지. 아 집어 먹으니 여가 뜨거워 살 수가 없어. 그래 죽었데유.

「방아타령 이야기」

옛날에 한 사람이 있는데유. 아, 저기 마누라를, 남의 마누라를, 제 마누라를 놔두구, 남의 마누라를 본거요. 그레는데, 큰 마누라가, 인제 큰 마누라라구. 그 마누라하구 또 영감하구, 셋이 인저 밭을 매려 간거유. 옛날에 인제 콩밭을 매려 갔는데, 그 인저 작은마누라지 그러니까, 작은 마누라가 인절미를 해 가지구 한 첨합 싸고, 여기에다 싸고 가는거요. 여기다가 인제 새 서방 줄라고, 싸가지구 갔는데, 가다가 인제 맨 큰마누라는 맨 뒤에 나오고 또 작은마누라는 영감 곁에 나가구 그레는데. 아니 영감은 고 뒤에 나가고 그 뒤에는 인제 큰마누라가 나가고, 인제 작은마누라는 맨 처음에 나가고 그런데 인제 신랑이 바로 고 곁에서 나가는데, 그놈의 콩잎을 하나 뚝 뜯어 놓고서는 인제 인절미를 하나 널름 놓구, 널름 놓으면 인제 그 때는 배가 고프고 인제 그러니까 막 잘 죽어 먹지 처음에는. 그래 널름 죽어 먹고 또 다 먹었나 해구 돌아다보면 또, 또 다 먹어서 인제 콩잎을 뜯어서 놓군 또 하나 집어 놓으니까 또 널름 죽어 먹고, 아 자꾸 죽어 멈다 보니까 배가 너무 불르거든. 그래도 한 계가 있으니 자꾸 먹을 수가 있어유. 그래 배가 너무 불러가지구, 아이 고만 놓으라고 그래믄 뒤에 큰 마누라가 일아 들을테고, 노래를 핸거여, 인제. 아이구 난 나는, 인제,

“나는 그것도 못먹겠네.” 그래니깐, 어어 처음에 인제 “드문드문 놔주세요.” 이래니까, 인제 저기 작은마누라가 그랬드래요, “나는 그것도 드물어요” 인제 아래 노래를 했거든. 그래 인제 큰마누라 못알아들으라고, 그러니까. 큰마누라는 있다가, 인자 인제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그냥 노래하는 줄만 알고, “애 여라 방아호” 그래니까 방아호로 들리드래요 (웃음) 드문드문 놔 달라소리를, 그 드문 드문 놔달라 그레믄, 큰마누라가 알아 들으니까, “드문드문 놔주세요” 그래니까, 작은 마누라는 있다, “나는 그것도 드물어요.” 그래니까, 뒤에 큰 마누라는, “애 여라 방하오”하고 방아타령을 하드래요. 노래하는 줄 알고, 못알아듣게 해느라고 인제 그랬는건데, 이건 몰르고 거기서 노래하는 줄 알고, 그전에는 왜 논매고 발매고 그렐 적 방아타령 해잖아요.

「원수깊기」

그 전에, 내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저기 이전엔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이 많이 집차지를 해구 살고 그랬거든요. 왜정때, 그랬는데 그 집을 아주 좋은 거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엄마가 죽구, 엄마는 죽구, 떨하구 아버지하구 둘이 살았어요. 거기서, 거기서 둘이 살았는데, 그 또 그 이웃에는 아들하나 또 아버지 하나 그래 또 그렇게 아

들하고 아버지하구 홀애비로 살고, 이집에는 또 아버지하구 떨하구 또 둘이 살구 그렇게 있었는데. 그집에는 아들 가진 집은 아주 가난해구, 또 이 딸가진 집에는 부자구 그랬었던 말이여. 그러니까 그 아들 가진 집에서 아무케도 저 놈을 다 뺏어야 되겠는데 그걸 어떻게 뺏나 해구서는 그걸 계획을 세울거여. 그래구서네, 자 우리 오늘 저 산에 우리 인삼을 캐러 가자. 지금은 미꾸사꾸가 있구 가방이 있지만 그전에는 추리막이라구 추리막. 추리막같이 둘이다 혜가지구 추리막을 해주구서는 점심을 싸 가지구 이제 가는데. 가지구서는, 아여 따뜻한데 우리 여기서 좀 놀다가자. 인제 그랬어, 거기서 점심을 먹고, 인제 놀다가 이제 이러구선 간다구 그랬는데. 이 밑에는 내려보면 아주 적충벽이거든. 적충벽인데, 거 자리에 인제, 편편한 자리가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좀 점심도 먹고 물도 마시구, 우리 여기서 한 숨 자구 가자. 그래 그 아들 가진 집 아버지가 그랬단 말이여. 그러니까 아 그럼 그러자. 그런데 놀이삼아 그래 간 간거니까, 아버지끼리. 그래 갔단 말이야. 아 가가지구선 인제 거기선 인제 아래 있는데. 둘이 우리 여 좀 한번 자고 가자, 이랬단 말이요. 그래 자다 보니, 자고 가자니까, 딸에 아버지가 잠이 들었드래요. 잠이 먼저 들었드래요. 그래 인제 아들 아버지 일어나가지구서는 고만 그 충벽으로

떨 밀었어. 뭐 밀으니까, 뭐 떨어지니 그 아래 층벽에 가서 죽지 살어? 아 그래구선 인제 하루 종일 거기다 떠다밀고, 하루 종일 해를 지우구선 집으로 왔단 말이여. 오니까, 인제 이 딸가진 딸이, 우리 아버지는 왜 안 오시냐고 물을 거 아니유. 그래니깐, 아이 난 아직 물론다구, 어디루 갔는지 모른다구. 아 그래 물론다구 아주 고만 그랬단 말이유. 그래 아무래도 저놈의 영감탱이가 어디다가 우리 아버지를 죽여서 내버렸는가 본데. 아 이구 어떻게 웬수를 갚아야 할까 하구선 인제 그 색시는 그랬는데. 그래 인제 그래다보니까, 인제, 그 아들, 그 집 아들하구 이 딸 하구 좀 친하게 가까이 됐단 말이유. 그런데 아들이 아들은 이름은 중수라고 그랬구, 이 딸은 애경이라구 그랬드라구, 옛날에 애경이라고 그래구, 중수라고 그랬는데. 그 중수라는 사람이 인제 그 애경이라는 사람을 좋아해구 서루 인제 이뤘는데. 그래 인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 세 식구가 한테 들어가 살 수밖에 있어요? 세 식구가 한테 들어가 사는데 저의집이 부자니까 그 부자를 다 끌어들인거지. 그래구선 사는데, 야 이거 저놈의 딸을 하나 마저 없애야, 저 며느리인데 그자? 저걸 하나 없애야, 요 재산 차지를 우리가 다 해가지구 우리 아들하구 그만 도망을 가야 되겠다 하구선 그래 그전에 일본, 일본 시대때 일본 놈들은 지하실을 잘 파지,

지하실을. 그래 지하실이 있더래요. 지하실에 며느리보고, 애야, 저기, 우리 지하실에 뭐 있으니, 있나 좀 가보고 우리 좀 보자. 꺼내려 가자. 그랬단 말이야. 그래 인제 며느리가 따라 들어 갔지. 그러니까, 아 이놈의 저기 시아버지라는 게 고만 거기다가 지하실에다가 갔다 가두구서는 얼른 먼저 나오구서는 지하실을 그만 문을 잠그고 기두었버렸어요. 가두구서는 나와 가지구서는 거기다가 지하실 문에다 흙을 갔다 얼마나 저 갔다 들어 부어가지구서는 지하실 문을 아주 흔적도 없이 해 놓았단 말이예요. 그래니깐 뭔 뭐 나올래니 나을 도리가 없단 말이요. 뭐 껌껌한 데 들어 앉아서 뭐 문을 찾을래니 찾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만 이 그 집하구 땅하구 다 팔아가지구, 그 두 부자가 다 날랐버렸어, 다 날랐버렸다구. 그래는데, 그래서 저기 그래서 간해서 들어 앉았다가 이래 더듬더듬 사방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저기가 있더래요, 저 호맹이, 자루빠진, 자루빠진 호맹이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더니 이래이래 더듬어 보니까는 그 쥐들이 먹던 감자, 감자가 있더래요. 그 감자를, 감자를 이래 거기서 굽어서는 이렇게 먹구 아래던 숟갈이 모지랑 숟갈이 하나 감자 옆에 숟갈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 숟갈루다가 인제 감자를 자꾸 굽어가지구 인제 먹구, 그래도 그 감자에 물이 있으니까 감자에 물이 있으

니까 인제 며칠을 아 연명하구 살은거유. 그랬는데 그래 지가 그래두 그 문을 향해가지 구, 지가 지나들던 집이니까 문을 향해가지 구 자 날이면 날마동 껌껌한데 앉아서 그 숯 같 총으투다가 숯같 총으투다 팠어, 패고 팠는데, 인제 그 집을 하마 딴 사람이 사가지 구 이사를 온거유. 이사를 온거니까, 어디가 지하실인지 어디가 뭔지 모르지. 그랬는데, 그 아래 돌아댕기다, 인제 이렇게 애가 하나 있는데, 돌아댕기다 아래 보니까 아 자꾸 거기서 뭐이가 요렇게 달막달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그애가 가서 아버지, 아버지, 저기는 쥐굴이 있는데 무슨 굴이 있는데 거기서 자꾸 요래요래 그래요 좀 가봐 그래더래요. 그렇게 그 애가 와 보니깐 숯같 총을 잡고, 요렇게 숯같 총을 내밀었따 들어 밀었다 이러더래요. 그래 숯같 총을 인제 숯 같 총을 잡구서는 꼬챙이를 지단 꼬챙이를 하나 이렇게 들이 밀으니까 그애가 그걸 잡은거요, 그 안에서. 그래 내가, 사람이니까 나를 좀 살려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아래니깐, 저기 이렇게 지하실에 내가 갇혔으니까 어디 여 우에가 바로 문이니까, 그걸 좀 꽈내구선 날 껴내달라구 그랬단 말이요. 그래서 막 꽈니까 문이 나오거든, 문이 나와가지구 열어보니까 형편없이 되가지구 들어 앉았는거지, 목숨만 겨우 불어가지구. 그래서 인제 껴내가지구서는 그래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니깐,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더니 내가 요놈들을 어디가 찾던지 찾아가지구선 웬수를 갚는다, 웬수를 갚는다 해구서는 그제야 인제 머리도 깎고 옷도 남복을 해구, 그래구서는 인제 아래 가서 어디던지 인제 가 찾구 이렇게 살피면서 인제 가가지구 인제 하루 저녁 또 누집에 가 자구 자구 인제 이랬는데. 어 같다 보니까, 인제 저기를 가서 친절히 한사람들을 아주 친절하게 인제 친해 놨었대요. 친해 놓구서는 그러니까 인제 친구로다가 살고, 남자인줄 알고 알고 인제 서로 서로 친구루다 살고 인제 이랬는데. 그 친구가 오늘은 하루 저리 놀러가자구 그래 우리 친구들도 모두 가니까 놀러가자구 그래. 그전에 개울에 가재가 많잖아, 가재, 가재 잡아 구워 먹구. 그러려 가자구 그러드래. 그래서 거 따라 간거요. 인제 이 여자가 따라갔는데, 여잔데 인제 남복을 했으니까 몰르지. 그래서 인제 구워 가지구서는 가재를 구워 가지구 먹구 그랬는데. 그 옆에를, 남자 옆에는 안가구 자꾸 뒤떨어져서 인제 그냥 저런 개울에 가서 발도 쟁구, 뭐 그냥 이렇게 뭐 이래구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해는 말이 저 사람은 천하 없어도 남자가 아니구 여자다. 이 손결도 그렇구, 발도 그렇구 어디를 본들 여자다. 그래 인제 그 친구가 인제 저 집에 태리고 가서 잘 적에, 그 어머니가 삼배, 삼배

흘이불을 인제 덮고 자라구, 둘이 한테 덮고 자라구 쳤단 말이유. 쳤는데 인제, 그 집 아들은 이 사람은 남잔지 알구 아무 상관 없이 그냥 자는데, 그 여자는, 남자니까, 참 간혹 가다가 애그, 내가 이거를 이 여자는, 남자라는 걸 털어버리고 여자라고 폭로를 해 가지구 이 사람 품에 들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던 거요. 내가, 아이구, 저 사람 한번 끌어 안아 볼까. 인제 그런 생각을 했대는 거지. 그랬는데 애라, 내가 아무 때라도 우리 아버지 웬수 잡기 전에는 남편을 내가, 남편이라는 사람을 내가 안 맞이했다. 그래구선, 요 순간을 내가 못넘기나. 그래구서는 인제 그 순간을 넘기구서는 인제 옆으로 돌아 누워서 자기도 해구,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그 친구 어머니가 호박잎을 따서 인제 이렇게 쪘가지구 된장 끓이구 이래서 밥을 해 주면, 보리, 풍보리 밥을 해주면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는구먼. 그래 모기도 많고 파리도 많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모기도 많고 파리도 많고 그런 집에서 또 며칠을 머물렀대요. 거기서, 그러다가 그 친구 보구서는 나는 인제 어디로 또 가야되겠으니까, 잘있으라고 이래고 또 떠난거요. 떠나가지구 어디를 인제 자꾸 이러구 살피고 가다보니까. 그 시에비를, 시아버지 됐던 자리가 나타내드래네. 그래서 그게 저 집이 어떤 집인가 해구서는 안보일 만큼 따라 갔어요, 따라 가니까 어느 집으로

들어가드래요. 그래더니 그 집에 들어가는 걸 보구서는 그 이웃에 가서 방을 얻었대요. 그 이웃에 가서 방을 얻었대요. 그래구서는 보니까 한약을 걸었드라네, 한약을. 한약방을 해 드래요. 그래는데 인제 고걸 아주 세밀히 알올라구, 바로 이웃에 가서 방을 얻어 가지구 있는데, 인제 가서 진맥도 해 보구 진맥도 해 보구, 약도 지어달라 그래구, 전혀 못알아보지 남복을 했으니까. 아 또 죽은게 살아오기는 생각은 안했지. 그랬는데 두 부자가 살드래는구먼. 그래 남편 자리되던 사람도 못알아보고 못알아, 전혀 못알아 보더래요. 그래서 인제 저녁으로 인제 가만히 연구를 했지요. 이제 연구를 했는데, 각목자치루다가 인제 그 담을 인제 훌렁 넘어가며는 각목 자치를 타구서 넘어가게끔 이렇게 이렇게 연구를 해 놨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구서는 거기서 인제 묵으면서 하루 저녁에는 이 입에다가 시퍼렇게, 빨겋게 물을 이렇게 칠을 해구, 고날 아주 뽀얗게 발르고 뺨가동이로다가, 이렇게 뺨가벗고, 뺨가다니다가서네, 이 가서 이 줄을 타고 넘어가가지 구서는, 너 요놈 아무개 있느냐? 인제 그런 거요. 그랬더니, 너 시에비 이름이, … 달, 달, 달새던가, 원, 달 뭔데, 달, 달새라 그러지 아마. 너 요놈 달새 여 있느냐? 그러니까, 앞문을 펼떡 떡 열고 내다보니까 아 그 귀신이 거던. 그러니까, 그만 아 기절을 해구 까무

러쳐 자빠진거요 그래, 너 요놈 아무정께
 네가 나를 갔다가 너 제 지하실에 넣고 나
 죽인 너 죽인 니가 나 죽이고 나왔지. 그린
 데 내가 그 귀신이다. 내가 죽었어도 죽었어
 도, 너무나 억울해서 내 언제든지 니 원수를
 갚을려구, 응, 계획한 사람이다. 이래니까, 아
 고만 벌떡 깨무쳐 자빠진거요. 그래 자빠지
 게 내비두고 또 왔지. 뭐 김쪽같이 넘어와
 버리지, 뭐. 그러니 뭐 알아? 어느 놈이 왔다
 갔는지. 아 그걸로는 고민을 해는 거여. 저
 녘에 또 간다. 저녁에 또 인제 그래가지구서
 는 또 가지구서 시퍼런 칼을 들고 가가지
 군, 너 요놈. 너 달새 요놈, 너 요놈. 집에 들
 어 앉았느냐? 해구 가면, 아 그것만 보면 고
 만 벌떡 깨무쳐 자빠지구, 벌떡 깨무쳐 자빠
 지구. 아 그래니까 저기 이것 이게 도대체
 이상한 일이다. 이게 도대체 이상한 일이지.
 아 이거 참 지서, 인제 갔다. 그 전에도 지서
 에다 갔다 고발을 해 본거지. 그러니까 누구
 한테 무신 원한이 없느냐, 이렇게 물더래요.
 그래, 인제 없다 그러지 있다 그러겠어, 없다
 그러지. 그랬는데, 아 그래도 원한이 있어서,
 그 원한 귀가 그런가 보다구. 그래구, 인제
 막 굿을 해구, 인제 그 귀신 잡을려구 막 굿
 을 해구 이러는데, 그럴땐 안가거든. 그 이
 웃이니까, 바로 이웃이니까. 굿을 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안 간단 말이지, 안 가지. 또
 굿만 안해구 있으면 또 나타내내 그기 또 나

타내, 괴롭히는 거지, 자꾸 그렇게 괴롭히니
 까, 너 요놈 그렇게 아니라, 너 요놈 네 성명
 하고 엉, 어, 그 사람 우리 아버지를, 너 우
 리 아버지를 어떻게 죽였다는 거, 그거를 써
 가지고 갖다 내. 세밀히 하나라도 빠추면 너
 는 내가 또 나타낼 테니까, 하나도 빠치지
 말고 고기다 세밀히 다 써가지구 니 장황 큰
 독 뒤에다가 묻어라. 묻으면, 묻고, 열십자로
 다 이렇게 표를 해 놔라. 이랬단 말이야. 그
 얼마나 머리가 좋아! 그지? 그러면 찾기도
 좋단 말이지. 그럼 열십자루다가 이렇게 저
 거를 표시를 해 놔라 이랬단 말요. 그러나
 그러면 내가 다시는 안 나타낸다, 이랬어.
 그랬더니 참 아 이눔이 금전에 뭐가 되서 그
 랬대든가, 인제, 제 저걸 다쓰고, 그 사람 어
 떻게 죽였다는 걸 다 쓰고, 제 이름 다 쓰구,
 아덜 이름 쓰구, 이래다 갔다가 적어 가지구
 서는 그 장황 뒤에다 갔다가 묻어 놨거든.
 묻구선 가지구 열십자루다 표를 해 놨어. 그
 러니까 이 사람이 그 가지구 꺼내 왔단 말
 요. 꺼내가지구 와 가지구서는, 인제 그냥
 인제 옷을 다 벗어 놓구 다 벗어 놓구, 인제
 평복을 해구서는 남자같이 그래두 인제 평
 복을 해구서는 가서 걸 내 놨어. 내 놓으면
 서, 너 요놈 너 요놈, 니가 그래도 이렇게 편
 하게 살겠느냐? 어 너 내 자산, 내 자산 다
 가지구 와서는 우리 아버지 죽이구, 내 자산
 다 가지구 와가지구 니가 부자 노릇하구 사

는데 나가 아래도 편하게 살겠느냐? 그래
 그러니까 발발 떨지 뭐, 발발 떨어. 두 부자
 가 발발 떨구, 아 저기, 내가, 니 덜도 나만
 치 그렇게 고상을 시키고 죽이구 싶으나 그
 래도 나는 그렇겐 못한다. 그렇게 못하니까,
 너희 재산 내 놓아라. 재산을 다 내 놔라, 그
 랜거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 내 놓지 뭐. 품
 짹없이 내 놓아야지, 품짬없이 다 놓구는, 인
 제, 웬수를 갚은 거지. 그놈들은 갔다가 인
 제 유치장에 들어갔겠지. 물론 그 그전에도
 유치장이 있을거 아니유. 그래 유치장에 다
 집어 넣구. 그래구선 인제, 재산은 인제 다
 찾아가지구 그 삼배 이불 덮고 그리던 친구,
 그 친구를 찾아온거요. 그 친구를 찾아 와가
 지구, 참, 그 어머니를 시어머니로 삼고, 그
 사람을 남편으로 삼고, 내가 아래저래 해서
 참 이렇게 은인이다. 그러니까 나하고 이렇
 게 천상 배필을 삼아가지구 살자, 하구서는
 그 돈 많은 걸루다 뭐 집을 이거 뭐 날라가
 게 짓고 시어머니를 얼마나 호강을 시키고
 뭐 그러는지 말도 못하게 호강을 시키고 그
 남편도 인제 그렇게 참 잘 호강을 시키고 이
 래구 그렇게 잘 살드래요. 그래서 아주 이
 복수를 고령게 옹골지게 했대요, 복수를.

국어학반 학술 답사 보고서

1. 답사 개요

(1) 기간 : 1996년 4월 24일 ~
4월 27일(3박 4일)

조교 : 이정복

1조 : 송원용, 문숙영, 이광호,
이서란

(2) 지역

- ① 경기 남부 및 용인시 지역 : 강회
맹, 이의, 남구만 · 남극관묘소, 칠장사
- ② 충주시 지역 : 주덕면, 월악산 미
륵사지
- ③ 제천시 지역 : 한수면, 청풍면, 청
풍 문화재 단지, 제천 의림지, 배론 성
지

2조 : 박기영, 이상신, 신서인

3조 : 이진호, 신중진, 이지영

4조 : 권도경, 이병기, 박재연,
엄윤주

5조 : 김 현, 김기훈, 남수경

(3) 목적

- 경기도 남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국어학 및 국어학사 관련 유적 답사.
- 충청북도 충주, 제천 지역의 방언
조사.

(4) 참가인원 : 이병근 선생님
외 19명

지도교수 : 이병근 선생님,
이현희 선생님

2. 답사 일정

제1일	제2일	제3일	제4일
9:00 집합, 출발 10:00 강회맹묘소 11:00 이익 묘소	8:30 아침 식사 9:30 와우정사 10:30 허균 묘소 11:30 칠장사	9:00 아침 식사 10:00 월악산 미륵사지 11:00 제천 한수면 방언조사	9:00 아침 식사 10:00 배론성지
1:00 심온 묘소 1:30 점심식사 3:00 정몽주 묘소 4:00 남구만·남극관 묘소 5:00 방언답사 (모현면 초부리)	1:30 점심식사 4:00 충주 주덕면 방언 답사	1:30 점심식사 2:30 제천 청풍면 방언조사 4:30 청풍 문화재 단지	1:00 서울 도착 해산
7:00 저녁 식사 8:00 평가 및 토론회	7:00 저녁 식사 8:00 평가 및 토론회	7:00 제천 의림지 8:00 저녁 식사 10:00 전체 평가 및 토론회	

3. 국어학반 학술 답사

3.1. 국어학 및 국어학사 관련 인물

이번 국어학반 학술 답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번째는 경기 남부 일대의 국어학 및 국어학사 관련 유적들을 돌아보고 강의를 통해 배웠던 지식을 구체화시키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충주, 제천 지역의 방언을 조사하여 기술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목적을 위해 경기도 남부 지역을 중심

으로 하여 강회맹, 이익, 남구만·남극관 등의 묘소를 돌아보았다. 이 중에서 성호 이익과 몽예 남극관의 생애를 살펴 보고, 그들의 저서인『星湖樞說』과 『蒙蠻集』 가운데 국어학 및 국어학사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았다.

3.1.1. 李漸과 『星湖樞說』

이익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본관은 驪州, 자는 自新, 호는 星湖이며,

숙종 7년(1681)에 아버지가 유배가 있던 평안도 운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선산이 있는 안산의 첨성리로 와서 평생을 거기서 살았다. 형에게 글을 배웠으나, 형이 장화빈을 두둔하는 소를 올린 이유로 옥사하자

과거에 응시할 뜻을 버리고 고향에 침거하였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와 노비가 있어서 재야의 선비로서 일평생 은둔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랜 질병으로 만년에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영락하게 되었고 영조 39년(1763) 오랜 병고 끝에 죽었다. 유해는 선영이 있는 첨성리(현재 안산시 이동)에 안장되었다.

그가 첨성리에 침거하여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진이 1678년에 진위 겸 진향사로 연경에 들어 갔다가 귀국할 때 사가지고 돌아온 수천 권의 서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익의 학문은 철저한 유교적 기반 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 주자에게로만 치우치는 폐풍에서 벗어나 수사학적인 修己治人의 학의 부흥을 기하였다. 그는 이이와 유형원의 학풍을 존중하여 당시의 사회실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무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재구의 준비가 있어야만

실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당시의 양반사회와 관료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양반들이 무위도식하지 말고 농토로 돌아가 생산에 직접 종사해야 한다고 하여 司農合一을 주장하였다.

이익의 학문사상은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단적으로 말하면 탈주자학적인 수사적 修己治人の 학문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수사학에로의 복귀 내지 부흥이 아니라 당시 조선 사회현실에 입각한 사회개편을 주장한 개혁사상을 의미한다. 그의 학문의 體는 어디까지나 경학에 두어졌음에도 사회현실에 비추어 보다 더 긴요하고 절실한 것은 경제치용의 학으로 간주했다. 그는 당시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서학의 수용으로 세계관, 역사 의식을 확대, 심화시켜 나갔고, 보다 더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방식을 체득할 수 있었다. 그는 비록 이교배처, 폐전론, 억밀책의 제의, 남녀관에서 정통유학자로서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사민평등의 인간관, 신분관, 직업관에서 근대적인 사회로 한걸음 다가섰음을 엿볼 수 있다.

저서로는 『星湖僊說』, 『舊憂錄』, 『李子粹語』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星

『湖僅說』은 이익이 평생에 수시로 지은 글을 모아서 편집한 백과사전적 책이다. 천지, 만물, 인사, 경사, 시문 등의 부문으로 나뉘었으며 부문마다 고증을 가하여 이익 사상의 실학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가 30권 30책으로 되어 있으며 사본이다. 현재 국역되어서 『국역 성호사설』이 보급되어 있다.

이러한 방대한 분량중에 훈민정음에 대한 언급은 人事門의 謂文이라는 표제 아래 실려 있다. 그 내용을 『국역 성호사설』에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언문 글자는 세종 28년 인 즉 병인년에 처음 지었는데, 온갖 소리를 글자로 형용하지 못할 것이 없었다. 사람들은 이를, “倉頡과 太史籀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 하였다. 원 세조때에 八思巴가 불씨의 유교를 엄어 몽고의 글자를 지었는데, 평상거입의 네가지 음운으로써 순·설·후·치·아·반순·반치 등 칠음의 모자로 나누어 무릇 소리가 있는 것은 하나도 빠뜨림이 없었다.(중략)

만약 규례를 미루어 문자를 만들었더라면 천하 후세에까지 통용되어 우리나라의 언문과 같은 공효가 있었을 것이니, 생각건대 명나라 초엽에는 반드시 그 법규가 남아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언문을 처음 지을 때에는 궁중에 관서를 차리고 정인지, 성삼문, 신숙주 등에게 명하여 찬정하게

하였다.(중략)

이 때에 원나라가 멸망한 지 겨우 79년이었으니, 몽고의 문자가 반드시 남아 있었을 것이며 황찬이 우리에게 전한 바는 아마도 이밖에 다른 것은 없었을 것이다.

이 글에는 훈민정음의 창제와 몽고 문자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훈민정음이 파스파 문자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정음의 창제자, 창제과정과 창제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훈민정음이 어디서 기원했는가와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익의 견해는 몽고문자 기원설로 분류될 수 있는 주장이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가능성 있는 견해이지만 전적으로 옳지는 않다는 것이 연구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3.1.2. 南克寬과 『蒙疊集』

남극관은 숙종15년(1689)에 남구만의 손자로 태어났다. 호는 蒙疊, 謝施 등이고 자는 伯居이다. 조부인 남구만은 숙종때 영의정을 지낸 소론의 영수였으며, 부친인 남학명은 음서로 관직에 나갔다가 곧 벼슬을 사양하고 초야에 묻혀 지냈지만, 당시의 최명길의 손자이며 이후에 영의정까지 오르고

양명학을 발전시킨 최석정과 친교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학문에 조예가 깊었으며 자연히 아들인 남극관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남극관은 「몽예집」이라는 문집을 남기고, 숙종 40년(1714)에 병약하여 26세에 요절하였다. 비록 어린 나이에 죽었으나 집안 내력에 걸맞을 정도로 학문적 성취가 상당했음을 「몽예집」을 통해 알 수 있다.

「몽예집」은 서문, 발문, 부록 등이 없기 때문에 편자와 간행 연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서두의 소인에 보이는 '癸巳徐夕自書'에서 계사년은 숙종 39년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몽예집의 내용은 그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2권 1책으로 되어 있으며 권 1에는 시 79수, 잡서 10편이 수록되어 있고, 시의 내용에는 開情을 읊거나, 次韻한 것, 묘사, 서정 등으로 다양하며 잡저의 내용에는 端居日記 등에서 독서 후의 평론, 저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권 2에는 언어, 문자, 지명의 연원 등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시문간평, 훈민정음 및 언해에 대한 논평, 字訓, 천상, 역법, 서법, 異聞古事 등에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명, 성씨의 연원, 훈민정음에 관한 견해, 이중모음에 대한 관찰 내용, 기타 잡다한 비평 등을 짤막하게 기술해 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중모음에 관한 기술은 국어 음운사에서 이중모음의 존재에 대해 언급한, 아주 귀중한 자료이다. 그동안 국어 모음사에서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과정과 시기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왔던 만큼 「몽예집」에서의 이중모음에 대한 기술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비록 국어사에 있어서 실제 언어 자료에 근거한 직접적인 기술이나 연구가 아닌 간접적인 증언이라 할지라고 어떤 암시는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我國物名終語必有伊字 如漢語兒字 高麗史云 方言呼貓爲高伊 今猶然但聲稍疾 合爲一字(우리나라 물명에는 중국어의 儿자와 같이 반드시 伊로 끝나는 말들이 있다. 고려사에 이르기를 우리나라에서는 貓를 高이라 하는데 오늘날도 그러한데 다만 소리가 끌라져 한 자로 합쳐졌다.)

“고니>고이>괴”와 같이 어중자음의 탈락에 이은 모음연쇄 또는 이중모음으로 인식되었던 고이는 15세기 문헌에 ‘괴’로만 표기된다. ‘但聲稍疾合爲一字’라는 남극관의 진술은 그의 생존연대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걸치는 만큼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과정과 시기에 대한 한 증언으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단모음으로 지칭하기 어렵다. 문자에 이끌린 면이 없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즉, 자가 문자를 지칭하는지 음운을 지칭하는지 판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세국어 이후로 사용된 ‘괴’에 대한 이중모음 인식이 그때까지 지속되었다고 한다면, 일자는 하향이중모음을 가진 일음절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我國諺解字訓已多變殊大曰키 小
曰효근 龍曰미르城曰재

今皆不用猶稱城內재안 犬曰가히
今稱개與貓之稱괴同

(우리나라의 언해와 자훈은 이미 많이 변했다. 키와 효근, 미르, 재 등은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城內를 이를 때만 재안을 쓴다. 가히를 지금 개라 이르는 것은 貓의 경우와 같다.)

‘녀’를 먼저 언급하고 ‘녀’가 ‘녀’와 같다고 한 진술에서 이 시기 남극관의 방언에서는 ‘녀, 니’가 단모음이라기보다 이중모음으로서 인식되고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녀’가 먼저 언급된 것은 오히려 ‘녀’의 예인 고이가 남극관에게 국부적 유표성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 더 설

득력있을 것이다. 문제는 ‘괴’와 같다 고 한 것이 무엇과 같다고 한 것인가이다. 통시적 변화과정인지, 단모음화 과정인지, 이중모음화과정인지 알 수 없다. 특히 단모음화과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옴라우트 예가 보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몽예집』의 2권에는 성씨의 언원이나 훈민정음에 대한 언급 등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3.2. 방언조사

기존의 방언 조사는 그 주된 목적이 한 지역의 방언을 가능한 한 정밀하게 조사, 기술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군 단위로 조사지역을 설정하고 베이스캠프를 차린 후 각 조가면 단위로 흩어져서 제보자를 선정하여 2일 내지 3일 동안 미리 준비한 항목을 음성전사를 통해 기술하고 정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번 방언조사는 이전처럼 한 지역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군에 속하는 면들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고 각 조가 그 면에서 제보자를 찾아 미리 준비한 항목들을 조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조사항목도 예전처럼 200~300여개의 항목을 선정하지 않고, 움라우트, 구개음화, 비모음화 등의 음운 현상과 '-앙이'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 형성을 예상할 수 있는 단어들, 그리고 몇몇 어휘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기존의 방언조사가 한 지역의 방언을 정밀하게 기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번 방언조사는 비교방언, 대조방언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비교방언 내지 대조방언의 성격을 가지고 이루어진 방언 조사에 있어서는 시간의 부족과 형식에 있어서의 낯설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우선 짧은 시간에 제보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더구나 방언 조사기간이 농번기였기 때문에 한 두 시간 정도에 제보자를 구하고 조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제보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각 지역에서 연세의 차이가 많이 나는 제보자를 각각 선정하여 기술하기보다는 비슷한 연세의 제보자를 선정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언조사가 이루어져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조사한 항목들은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 제시해 놓았으며, 각각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4. 평가

이전과는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진 국어학반 학술답사에서 가장 큰 성과라면 수업시간에 들었던 여러 국어학 관련 유적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국어학, 국어학사적인 지식들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적들에 대한 국어학 도로서의 관심을 더욱 깊게 하여 그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도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학사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인물로 꼽고 있는 유희의 묘소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은 단지 국어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유산들에 대한 소중함 또한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번 국어학반 학술답사를 통해서 얻은 경험들을 토대로 몇가지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면 이러한 형식의 학술답사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때 더욱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보고를 마치고자 한다.

조사항목	총주 주덕면	제천 한수면 송계리	제천 청풍면 물태리
언청이	언챙이/언청이	체보	허체이
울챙이	울챙이/울챙이	울청이	울체이
달팽이	달팽이		끌뻬이
우렁이	울갱이	울뱅이	울뱅이
지렁이	지랭이	기령이	지래이
굼벵이	굼벵이	굼뻬이	굼뻬이
염생이	염소	염소	염소
깽이	깽이/깽이	깽이/혹깽이	목깨이
호미	호미	호멩이	호메이
고쟁이	고쟁이	꼬개이	꼬개이
종이	종이	종이	종우
방망이	방嚇이	방멩이	방메이
고쟁이	고쟁이	고재이	고재이
잠뱅이	잠뱅이/종이	반쟁이	잠마
엉덩이	웅뎅이	웅멩이	웅메이
오금	오금	오금쟁이	오금재이
고암이	고애이	고냥이	고내이
삭정이	삭깽이(찌이)	술삭쟁이	삭제이
아지랑이	아지랭이	아지랑이	아지래이
눈두덩(-이가)	눈뚱이가		눈데이
호미			호메이
키	키/치	키	치
조리	조리	조래이	조레이
고명	꾸미	꾸미	꾸미
부삽	부삽/고물개	굼배	
허리띠	허리띠	허리띠	허리띠
겨드랑	겨드랑	저드랑	저드랑
버릇	버릇	버릇	버릇

조사항목	충주 주되면	제천 한수면 송계리	제천 청풍면 물태리
정기	정기/장기	국정이	극쟁이
보습	보습	보습	보습
간장	간장	간장	간장
조선간장/왜간장	조선간장/왜간장	조선간장/왜간장	토종간장/왜간장
누룽지	누룽지	누룽이/누룽지	누른밥/깜밥
뚜껑	뚜껑		뚜에, 복걸뚱
술뚜껑	술뚜껑		호도방
장독뚜껑	장독소래기		장독소래기
항아리뚜껑		항아리뚜껑	
사발뚜껑	복지	사발뚜껑	뚜에
아궁이	아궁이 / 고쿠락	모가리	아궁이
석쇠	적쇠	적쇠	설쇠
물부리	빨쭈리	빨쭈리	물쭈리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빨랫돌	빨래돌		빨래돌
씨아	씨아	체기	체기
딸꾹질	딸꾹기/새알	체기	깔때기
소꼽질	통고바리장난	소꼽짱난	소꼽장난
팽이	팽이	팽이	팽이
할망구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수리	우수리(일본말)	거스름돈	거스름돈, 오수리
마지기	마지기	마지기	마지기
마리(돼지, 猪)	마리	마리	마리
미꾸라지	미꾸리	미꾸라지	미꾸라지, 미꾸리
게	게		기:
새우	새우(민물)	새우	새우
	징기미(바다)		징기미(大)
다슬기	배틀을갱이, 다슬기	굴뱅이	굴뱅이, 올뱅이

조사항목	총주 주덕면	제천 한수면 송계리	제천 청풍면 물태리
김(매다)	파사리한다	김	짐
기둥	지등	지동	기둥
키	치	채	치
기름	지름	기름	
참기름	창지름	참기름, 들지름	창기름, 들끼름
김치	짐치	김치, 짠지	김치, 동자미
김		김	질
밀기울	밀지울	기울/지울	지울
엿기름	여젤금	열젤금	여젤금
기미		지미	기미
기저귀	지저구	지저구	기저구
겨	쨍게	땡가루	보리재, 당가루
곁			저테
깁다	꼬메이벌따		진는다
낀다	찐다, 찐운다	끼운다	낀다
깜부기	깜뷔기	깜뷔기, 깜비기	깜뷔기
방앗공이		꽁이	꽁이
꾸미	꾸미	꾸미	꾸미
누비이불		뇌비이불	
마디	손마디	매디	매디
메뚜기	메뛰기	메뛰기(小) 땡개비(大)	메띠기
울가미	울개미	울개미/옹우	울개미/옹우
뜸부기	뜸뷔기	뜸부기	뜸부기
장끼	쟁끼	장끼	쟁끼
잠기다			챙긴거
구기다	꾸겨진다	구진다	꾸기다
마렵다	매렵꾸		
안기다	앵간다	앙긴다	앵기지
벗기다	베껴야지	빼껴가지구	빼끼야지, 빼기고

현대작가반 학술 답사 보고서

1. 결단식 및 편성

88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에 이어 8번째로 시도된 현대작가반의 학술답사는 1996년 4월 22일에 2동 202호에서 예비모임 및 결단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학술답사의 목적과 의의를 숙지하고 이번 답사 장소인 부여군 일대의 자리 및 문화에 대한 간단한 사전 설명이 있었다. 이어 이번 답사의 대상 작가인 신동엽과 정한모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설명으로 예비모임을 마쳤다. 96학년도 현대작가반의 편성 및 참가자,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편성

지도교수 : 한계전, 오세영,

조남현, 권영민 선생님

담당조교 : 홍재범

참가자 : 하희정, 이병호(이상 박사과정 2명), 배개화, 김석봉, 천정환, 김승구, 박주현, 김원철, 임희섭, 신원용, 정영훈, 김경욱, 김주리, 서진영, 이수형(이상 석사과정 13명), 최태원, 이수영, 하시모토 지호, 최혜림, 정의열, 이경재, 정일선, 이영아, 김상아(이상 학부과정 9명)

(2) 답사기간 : 1996년 4월 24일~4월 26일(2박 3일)

(3) 조사대상작가 : 정한모, 신동엽

(4) 조사지역 : 충남 부여군 일대

2. 본조사 및 일정

1996년 4월 24일 반포 뉴코아 백화점 정문에 집결하여 당일 오전 9시 30분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서울을 떠났다. 정식 조사 지역인 부여로 가는 도중에 백제의 두 번째 도읍지였던 공주에서 마곡사와 선사 고분군을 들러 보았다. 오후 3시 부여읍에 도착하여 국립 부여 박물관을 관람하고 5시 30분에 부여 시내의 숙소에 여장을 풀었다. 저녁 8시부터 신동엽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학부과정 3년인 이경재의 「신동엽 연보」와 석사과정 2년인 김승구의 「신동엽의 시세계」라는 제목의 발표 후 학생들간의 토의가 있었고, 선생님들께서 총평을 해 주셨다. 한편, 주제 발표가 있기 전에 공주의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詩作 활동을 하고 있는 나태주 선생으로부터 대전, 충남 지역의 문인들의 계보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4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도보로 부여 외곽에 소재한 부소산과 낙화암을 답사하고 이어 부여 시가지에 있는 신동엽 시인의 생가와 시비를 답사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경에 버스편으로 정한모 선생의 생가와 모교가 있는 석성면으로 이

동하였다. 석성면에는 정한모 선생께서 유년 기를 보냈던 석성 초등학교가 있으며, 이 학교 내의 도서실에서 오세영 선생님으로부터 정한모 선생의 시세계에 대한 특강을, 조남현 선생님으로부터 정한모 선생의 성품과 평소의 언행에 대한 회고담을 들었다. 뒤이어 정한모 선생의 생가를 방문했으나, 예전의 집은 헐렸고 그 터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오후 8시부터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에 국문과의 진로 및 현대문학 연구자로서의 자세 등에 대한 자유로운 토의가 있었다. 답사 일정의 마지막 날인 4월 26일 오전에 이번 현대작가반의 답사에 대한 평가회를 가졌고, 그후 고속버스로 부여를 출발하여 오후 1시경에 서울 남부 터미널에 도착했다. 지도교수님을 모신 공식적인 답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지만 답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2박 3일 간의 일정이 짧음을 아쉬워 하여 인근에 소재한 서울 교대 운동장에서 간단한 구기 운동을 하고, 뒤이어 늦도록 술잔을 나누었다.

3. 주제 발표 및 토의의 내용

김승구의 「신동엽의 시세계」에서 논의의 쟁점이 된 것은 발표자가 신동엽의 시를 설명하는 중심 범주로 사용한 “原數性, 次數性, 韻數性”이라는 개념과 관계된 것이었다. 이 개념들은 「詩人精神論」이라는 신동엽의 평

문에서 인용한 것인데, 발표문은 “원수성, 차수성, 귀수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문명비판의식이 초기시에 속하는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大地」 등에서 뚜렷이 발견되며, 이러한 비판의식이 「껍데기는 가라」 등의 후기시에 내재한 역사의식과 모순없이 발전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박주현, 임희섭 등은 초기시와 후기시가 동일한 선상에서 발전적으로 연결된다는 발표문의 전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천정환은 발표문이 논리 전개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동엽의 시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기점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는 발표문의 논지는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학생들 간의 토의가 끝난 후 오세영 선생님은 토의에 대한 총평에서 어떤 시인이 평문을 통해 밝힌 견해를 그대로 시작품의 설명에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르며, 시작품은 개별적인 시를 분석함으로써 설명되어야 한다는 일반론을 피력하였다. 한편 오세영, 조남현 선생님은 신동엽의 시에 대한 총평에서 신동엽의 시가 어느 정도의 의의를 가지는 것은 인정해야 하지만 그 성과가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는 견해를 공통적으로 보이셨다.

4. 발표문 요약

(1) 申東暉 年譜 (학부 과정 3년 이경재)

출생과 어린 시절 신동엽 시인은 1930년 8월 18일, 충남 부여읍 동남리 294번지에서 평산신씨인 아버지 申端厚과 광산김씨인 어머니 金永姬 사이의 1남 4녀 중 맨아들로 태어났다. 시인의 어린 시절은 무척이나 가난했다. 훗날 시인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나의 설계—서둘고 싶지 않다」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내 故鄉 사람들은 봄이 오면 새파란 풀을 씹는다. 큰 가마솥에 자운 영, 青蛇풀, 말풀을 썰어 넣어 삶아 가지고 거기다 소금, 기름을 쳐서 세 살짜리도, 七旬 할아버지도 콧물 흘리며 우그려 넣는다.”

청년기 1942년 그는 국민학교 졸업과 함께 집안의 가난으로 인해 전주사범학교에 입학한다. 학비를 댈 수 없던 부친 신연순은 김종의 선생의 권유를 받아들여 학비가 들지 않는 전주사범에 보내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전주사범학교 시절 신동엽은 문학과 철학서적을 오가면서 홀로 고독한 생활을 보냈다. 훗날 그의 서재에 쌓여 있던 수많은 岩波文庫와 사회문화서적들은 바로 이 시기에 읽은 것이다. 특히 그는 엘리어트의 시와 시론, 뚜르게네프와 크로포트킨에 심취하곤 했으며,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방의 소용들이 속에서 동엽은 1948년 전주사범을 졸업한다. 집안 형편상 도저히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던 동엽은 1년간 부여에 머문다. 이 시기에 그는 자신의 고향인 부여를 배제의 고도로서 새롭게 바

라본다. 자신이 지금껏 섭취해오던 서구문학 이론과 그 작품세계에서 벗어나 동양의 혼과 한반도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역사현장의 설렵과 함께, 역사이론의 탐구에도 관심을 기울이던 동엽은 넘치는 학열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어 1949년 마침내 서울의 단국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한다. 그러나 그는 6.25로 인해 곧 낙향하게 된다. 국민방위병으로 징집되어 건강을 크게 상한 신동엽은 고향에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1953년 부산에서 단국대 사학과를 졸업한다.

본격적인 문학 활동 그는 「이야기하는 생기꾼의 대지」라는 장시를 쓰고, 이 작품으로 195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입선한다. 신동엽은 처음부터 문단의 굳어진 관습 따위는 안중에 두지 않았다. 그 후에도 그는 연이어서 「진달래 산천」 같은 문제작을 발표 한다. 1960년 그는 教育評論社에 취직한다. 그해 현장에서 4.19를 목도한 신동엽은 『학생혁명시집』에 4·19를 노래한 혁명시 「아사녀」를 발표한다. 1961년 교육평론사를 물러난 동엽은 명성여고의 국어교사로 특채된다. 1963년에는 18편의 시를 모아서 『아사녀』란 이름의 시집을 문학사에서 간행한다. 문학 작품으로는 시집 『아사녀』를 포함해 약 70여 편의 시를 남겼는데, 여기에는 「금강」이나 「그 입술에 파인 그늘」과 같은 장시와 詩劇도 포함된다. 그 외에도 20여 편의 수필과 평론을 발표했고, 「석가탑」(1968년 5

월 白秉東 作曲으로 드라마 센터에서 상연되었음)이라는 오페레타(operetta)를 창작하기도 했다.

인간 관계 및 성격 동엽은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몇몇 사람들과의 정겹고 소박한 대인관계를 좋아했다. 오랜 동안 그와 친분을 나누었던 사람으로는 김수영, 구상희, 노문, 남정현, 박봉우, 현재훈 등이 있다. 부인의 말에 따르면 동엽은 “하다못해 못 하나 박는 것조차 제대로 할 줄 몰랐다”고 한다. 현실세계를 살아가는 생활인의 자세가 결여돼 있었으며, 가사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마지막 모습 그는 60년대의 암울한 시대 상 속에서 점점 더 술과 가까이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작품활동에 열심이었다. 「鎭江」을 내놓은 지 얼마 안 되어 「임진강」이라는 장편서사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보다 균접된 시각으로 다루기 위한 이 작품을 위해 임진강변과 문산지방을 몇 차례 다녀오는 등, 자료준비에 박차를 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끝내 이 작품을 마무리짓지 못한다. 60년에 들어서면서 그의 몸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비사상태에 이르고 있었다. 국민방위군 시절 입었던 치명적인 영양실조와 간디스토마, 그로 인한 간경변증이 마침내 그를 간암에 이르게 한 것이다. 그는 4월 7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때 그의 나이 39

세였다. 그의 시신은 4월 9일 경기도 파주군 금촌읍 월룡산 기슭의 한 공원묘지에 매장되었고, 1970년 4월 7일에는 충남 부여읍 군수리 수북정이 내려다 보이는 나성터 금강 기슭에 시비가 세워졌다. 1975년 창작과 비평사에서 그의 전집이 간행돼 나왔으며, 1982년에는 유족과 창작과비평사에서 「신동엽 창작기금」을 마련하여 제1회 대상자로 이문구씨에게 2백만원을 지급했다.

(2) 申東暉의 시세계 (서사 과정 2년 김송구)

서론 신동엽의 시를 떠받치고 있는 정신의 기저에는 동학농민전쟁 전후로부터 1900년대를 째뚫는 날카로운 역사의식이 내재해 있다. 그의 시는 동학농민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현재와의 긴장 속에서 현실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정신의 날카로움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투명한 역사인식에는 이보다 한층 깊은 정신이 내재해 있는 데, 이는 「詩人精神論」이라는 글에 담겨 있는 사상체계이다. 기본적으로 申東暉의 시의 근저에는 1961년에 발표한 이 사상체계가 베풀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상체계를 알아보는 데에서 시작할 때 그의 시세계는 한층 투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全耕人’으로서의 시인 : 「詩人精神論」 그가 말하는 ‘原數性世界’란 문명이 발생하기 이전의 단계로서 자연과 인간 사이의 조화

가 존재했던 인류의 고향이다. 그러나 조화롭던 원수성의 세계는 인간의 문명과 제도에 의해 파괴되고, 본질이 상실되고 모순에 휩싸인 세계가 등장하게 되는 데 이것이 그가 말하는 '次數性世界'이다. 이 세계는 인류의 문명에 의해 만들어진 분업 구조 속에서 모순을 빚고 있는 현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차수성 세계에서 원수성 세계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매개작용을 하는 것이 '歸數性 世界'이다. 그는 문명화된 분업사회인 현대사회를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문명 이전의 세계를 순수한 것으로 인식하여 동경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의 시에 드러나는 60년대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은 폭넓은 차원에서 보자면 위에서 살핀 세계인식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서정시편의 세계 申東暉에 본격적으로 시단에 진입하게 된 것은 195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大地」가 당선되면서부터이다. 이 시에는 시인의 현대 문명에 대한 극단적 부정의식이 두드러지게 표출되고 있다. 이는 차수성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정으로서 신동엽의 극단적 문명부정의식으로 인해서 '集體', '體系', '組織' 등 현대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도화·복잡화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절대적인 악으로 단죄한다. 이 시에서 그가 지향하고 있는 원수성의 세계는 문명 이전의 자연세계로 그려지고 있다. 등단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의 한 부분인 제5화를 살펴볼 때 「詩人精祿論」에서 평친 세계인식론이 자신의 시작활동의 근저에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극단적인 이분법적 세계 인식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즉 근대문명의 이중성에 대한 인식의 결여로 인해서 그의 시는 현대사회를 절대적 악의 세계와 등치시켜 놓는 인식상의 경직성이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명 비판의 소박성, 인식의 추상성, 관념성 등의 한계를 보인 초기의 사적 경향은 申東暉이 4·19혁명, 5·16쿠데타, 6·3 한일회담 반대시위 등 60년대 초반의 현실과의 부딪침을 겪는 과정에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껍데기는 가라」에는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大地」가 보여 주는 한계를 넘어서 그의 세계인식이 한층 역사적·사회적 구체성을 획득하고 있다. 이 시는 「껍데기는 가라」와 같은 분노의 목소리로 시작되지만 그 속에는 4·19혁명, 동학농민전쟁, 외세의 개입으로 점철된 한국사의 모순에 대한 인식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詩人精祿論」이 가지고 있는 세계인식과 이것이 한층 구체화된 역사의식을 서정시라는 형식에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申東暉 자신도 이를 인식했음이 분명할 터인데, 이는 그가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大地」와 같은 장시 형식의 시를 발표함으로써 등단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준다고 하겠다. 뒤이어

그는 자신의 모든 '철인적·시인적·종합적 인식'을 「鑄江」이라는 방대한 시 속에 담으려고 시도했다.

「鑄江」의 세계 「鑄江」은 「이야기하는 쟁 기꾼의 大地와 마찬가지로 「서화1·2·제1장·제26장·후화1·2」의 액자구성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1장에서 제26장까지의 본 내용만을 볼 때는 역사적 순간의 한 부분을 사실과 허구의 결합을 통해 형상화해 놓은 데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내용을 「序話」나 「後話」와 연결시킬 때 동학농민전쟁은 단순한 일회적 역사가 아니라 현대사를 지속하는 긴장을 부여하는 살아있는 역사로서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 「後話 2」에서는 1894년 3월, 1919년 3월, 1960년 4월 그리고 창작 당시를 각각 한 연으로 배치해놓고 피흘림을 통해서 소중한 것을 정취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민족의 비극적인 역사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시인은 이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半島 하늘높이 나부낄 평화'의 세상이 오리라고 다분히 예언자적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예언자적 확신을 어디에서 얻었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 본 내용과 「後話 2」 사이에 있는 시 「後話 1」은 의미있는 근거가 된다. 「後話 1」에서는 노동자로 설정된 화자가 늦은 밤 종로 5가 네거리에서 만난 어떤 소년의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다. 그 소년은 화자에게 동대문으로 가는 길을 묻고 사라져 버렸지만 시인의 의식

속에 그 소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존재로 부각된다. '국민학교를 갓 나왔을' 듯한 어린 나이에 '새로 사 신은 운동화는 벗어들고' 등에는 고구마로 가득찬 푸대를 '무거운 맷방 새까풀'로 묶은 소년의 모습을 화자는 '연민'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이내 소년은 '노동자의 흥수' 속으로 사라져 모습을 감춘다. 「鑄江」은 '아기하느'의 탄생으로 끝맺음을 하게 되는데, 시인은 어느날 자신이 만난 소년을 '아기하느'가 역사적으로 부활한 인물로 동일시한 것이다. 비록 '少年'은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죄없이 크고 맑기만 한少年의 눈동자' 속에서 시인은 새 역사를 이룩해 나갈 힘을 본 것이다. 또 '少年'이 '노동자의 흥수' 속으로 사라지는 마지막 연은 점차 역사의 전면으로 부각하고 있던 새로운 힘을 암시하고 있어, 시인이 역사현실을 鑄江는 정신의 날카로움을 느낄 수 있다.

5. 전체 평가 및 해단식

5월 2일(목) 오후 4시 국어국문학과 학술답사의 전체 평가회 및 해단식을 가졌다. 여기서 담당 조교인 홍재범이 현대작가반의 활동 상황을 보고했다.